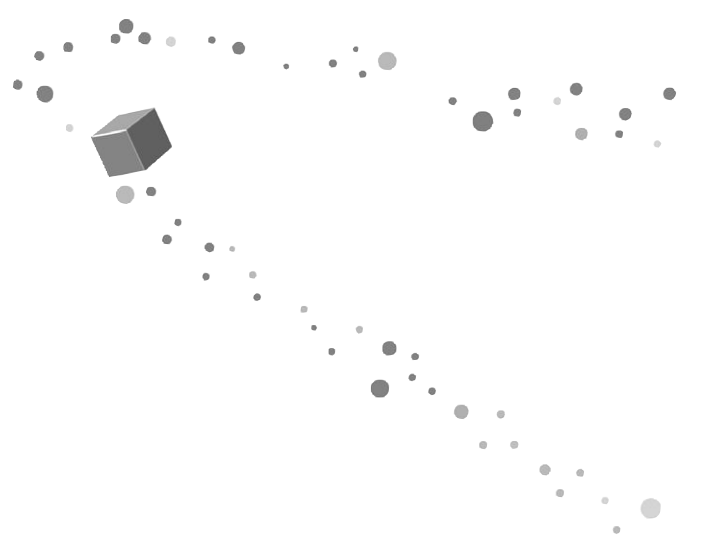




2010. 11

섬유판션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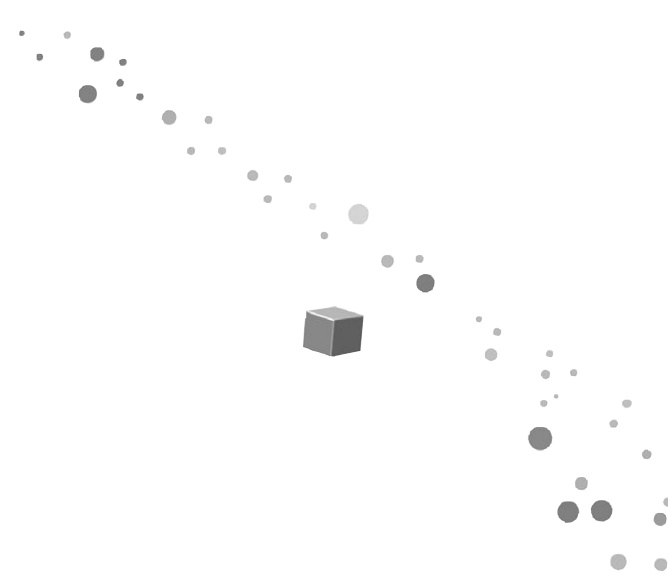
2010. 11
섬유판션산업 동향



우리 연합회에서는 국내외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분석을 위해
섬유패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종별, 지역별 최신 동향자료를 집필하여,
이를 섬유패션업계, 학계, 단체, 정부, 연구소, 관련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매월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28-4025 Fax) 02-528-4071 E-mail) jungho@kofoti.or.kr





목차

◆ 2010년 10월 섬유류 수출입 동향	1
◆ 해외 섬유패션산업 시장 동향	4
1. 면방산업 동향	15
2. 화섬산업 동향	19
3. 모방산업 동향	23
4. 직물산업 동향	26
5. 염색산업 동향	30
6. 의류봉제산업 동향	33
7. 패션산업 동향	38
8. 패션소재산업 동향	42
9.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I	46
10.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II	49
11.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동향	51
12. 충남 공주·유구 자카드산업 동향	58
13. 전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62

2010년 10월 섬유류 수출입 동향

□ 2010년 10월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26.8% 증가한 12.8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35.6% 증가한 10.1억불, 무역수지는 2.7억불 흑자 기록

▷ [수출] '09. 11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다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여 '10. 10월 수출금액은 26.8% 증가한 12.8억불을 기록하였음

* 증가율(%) : ('10.5월) 26.8 → (6월) 20.8 → (7월) 18.6 → (8월) 20.4 → (9월) 3.7 → (10월) 26.8

● 10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과 둔화가 혼조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계절적 성수기 시즌에 힘입어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 수출금액 추이(백만불)

- ('10.5월) 1,155 → (6월) 1,212 → (7월) 1,311 → (8월) 1,052 → (9월) 1,111 → (10월) 1,281

●(품목별 현황)

① 원료, 사

- 직수출, 생산기지로의 수출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유지

* 수출 평균단가

- 섬유원료 : ('09.10월) 1.35\$/kg → ('10.10월) 1.56\$/kg으로 15.7% 증가

- 섬유사 : ('09.10월) 3.43\$/kg → ('10.10월) 3.97\$/kg으로 15.7% 증가

② 직물류

- 최대 수출품목인 편직물(22.9%)과 인조장섬유직물(23.0%), 그리고 기타직물(28.7%)은 수요증가로 인하여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

- 특히 직물 수출의 경우, 물량(17.7%)과 수출 평균단가(6.9%)는 꾸준히 증가

- 지역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터키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

* 수출평균단가

- 직물류 : ('09.10월) 7.69\$/kg → ('10.10월) 8.22\$/kg으로 6.9% 증가

- 편직물 : ('09.10월) 7.17\$/kg → ('10.10월) 7.63\$/kg으로 6.3% 증가

- 인조장섬유직물 : ('09.10월) 9.74\$/kg → ('10.10월) 9.94\$/kg으로 2.1% 증가

- 면직물 : ('09.10월) 9.88\$/kg → ('10.10월) 10.63\$/kg으로 7.6% 증가

③ 제품류

- 편직제(21.4%) 및 직물제(24.6%) 의류의 수출은 수요확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혁의류 및 기타제품(△13.2%)은 감소세 기록
- 의류의 경우, 혁의류 제품은 큰 폭의 물량감소를 나타내었으며, 기타 섬유제품(△10.5%) 또한 수출단가 하락을 나타내며 섬유제품의 수출단가는 2.8% 하락
- 지역별로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

* 수출평균단가

- 편직제 의류 : ('09.10월) 14,67\$/kg → ('10.10월) 16,23\$/kg으로 10.6% 증가
- 직물제 의류 : ('09.10월) 13,52\$/kg → ('10.10월) 14,38\$/kg으로 6.3% 증가

●(국 가)

- 전반적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9.1%), 베트남(31.2%), 인도네시아(43.6%), 미국(7.5%), 홍콩(37.7%) 등 주요 수출국은 증가세를 유지

▷ [수 입]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한 의류품목과 면사의 수입증가로 '10. 10월 수입금액은 35.6% 증가한 10.1억불을 기록하며, '07년 10월 이후 첫 10억불 초과 기록

●(품 목)

- 주요 수입품목인 의류(47.7%), 기타섬유제품(19.2%), 면사(28.9%), 인조섬유장섬유사(21.4%)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겨울철 모피의류 수요증가로 혁제의류 및 모피의류는 101.0%의 높은 증가세 기록

●(국 가)

-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31.9%), 베트남(66.3%), 인도네시아(60.5%), 미국(43.4%), 이탈리아(40.1%) 등 증가세를 유지

▷ 물량 기준으로 '10.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9.7% 증가한 24.8만톤을 기록했으며, '10. 10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한 14.3만톤을 기록

< '09~'10년 월별 수출입 단가 >

(US\$/kg)

구분	'09.3	6	9	12	'10.1	2	3	4	5	6	7	8	9	10
수출 단가	4.48	4.66	4.78	5.00	4.83	4.72	4.85	5.20	5.32	5.31	5.38	4.87	5.02	5.17
수입 단가	5.79	4.91	6.16	5.42	5.83	5.90	5.78	5.71	5.42	5.58	6.19	7.01	7.39	7.08

< 2010년 9월 수출입 실적 >

(억불, %)

구분	전 체		섬 유 류	
	2009	2010. 10	2009	2010. 10
수출	3,635 (△13.9)	433.6 (27.6)	116 (△12.6)	12.8 (26.8)
수입	3,231 (△25.8)	368.8 (21.3)	74 (△15.8)	10.1 (35.6)
수지	404	64.8	42	2.7

< '09~'10년 월별 섬유류 수출입 실적 >

(백만불, %)

구분	'09.11	12	'10.1	2	3	4	5	6	7	8	9	10
수출	1,000	1,138	922	880	1,128	1,282	1,155	1,212	1,311	1,052	1,111	1,281
	6.1	20.2	30.8	15.1	22.9	13.3	26.8	20.8	18.6	20.4	3.7	26.8
수입	638	690	686	649	744	818	725	743	808	922	957	1,014
	17.9	25.9	20.2	49.6	31.0	44.3	56.3	32.6	28.7	34.7	18.1	35.6

* 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통계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해외 섬유패션산업 시장 동향

1. 인도 의류시장 이머징 7대 트렌드를 해부한다

- KOTRA 인도 뭄바이KBC

- 외국 브랜드, 현대식 매장, 서구 기성복 구매, 개성 중시, 브랜드 체인점 입점 확산
- 인도 의류 소매시장의 세부사항 분석

□ 이머징 7대 트렌드

● 트렌드 1 : 외국 브랜드 약진

-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했음. 인도 브랜드들은 새로운 상품, 세그먼트이션, 포맷으로 다변화 시도 중
- 이미 진출한 외국 브랜드 : Benetton, Lacoste, Levi's, Crocodile, Dockers, Lee, Wrangler, Nike, Reebok, Adidas, Guess, Esprit, Mango, Hugo Boss, Mark & Spencer's, Tommy Hilfiger, CK Jeans, Versace, FCUK, Zara, Mother Care, NEXT, Debenhams, DKNY 등
- 대부분의 외국 브랜드들은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 진출
- 프리미엄 의류시장은 190억 루피로 추정됨. 매출액 연평균 20%대 고성장 중

● 트렌드 2 : 공식 유통채널과 현대적인 거래방식이 성장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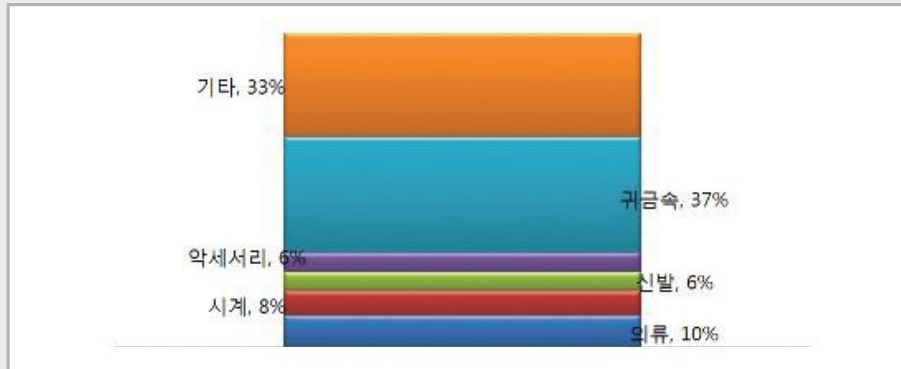
-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 매출액은 인도 소매 매출액의 약 40%를 차지, 점유율 1위
- 최근 5년 동안 슈퍼 프리미엄 브랜드가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 중
- 시골지역에는 브랜드 제품이 거의 진출해 있지 않고 지방 영세 의류업체들이 시장을 지배
- ITC의 Chaupal Sagar가 Madhya Pradesh에 최초의 하이퍼마켓을 오픈하고 Springfield라는 저가 의류 브랜드를 몰에서 판매하기 시작함

● 트렌드 3 : 소비자 마인드세트 변화, 가치를 점차 중시

- 직접 맞춘 의상에서 서구식 기성복으로 유행이 바뀌고 있음
- 가처분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의류가 쌀, 밀가루와 같은 저가 벌크품에서 라이프스타일과 브랜드도 감안하는 수준으로 단계가 높아짐

- 도시 소비자들을 위주로 여러 아이템을 구매해 자신만의 스타일과 취향에 구색을 맞춰 입는 경향이며, 매장 종업원들도 권유나 강권보다는 알아서 골라 사도록 하는 경향
 - 잘 알려진 브랜드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늘어남. 잘 알려진 로고, 컬러, 디자인일수록 제품이 우수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
 - 직장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성의류 시장이 넓어짐. 해외 브랜드의 진입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퓨전외류와 서구의류의 수요가 증가
 -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의류의 수요가 증가
 - 브랜드가 있는 캐주얼복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인 라이프사이클 변화 때문에 클럽복과 라운지복 수요도 증가함
- 트렌드 4: 대도시에서 중간규모 도시, 중소도시, 시골 지역으로 상권 확대
- 지하철 주변, 도심지는 이미 국내외 브랜드가 다 장악한 상황이고 중간규모 도시, 중소도시, 시골 지역으로 상권 확장 시도
 - Noida, Amritsa, Kochi, Gurgaon 등의 신흥 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트렌드 5: 소매 체인과 포맷 증가세
- 인도의 1인당 아울렛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1인당 소매 공간은 2평방피트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
 - 최근에는 멀티브랜드 아울렛인 MBO(Multi Brand Outlet) 포맷과 백화점이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어, 비공식 전통의 영세 소매점들이 폐업하고 브랜드 쇼룸으로 바뀌는 추세
 - 멀티브랜드 아울렛인 MBO(Multi Brand Outlet) 포맷: 한 장소에 여러 브랜드가 입점한 MBO의 증가 경향
 - 멀티브랜드 리테일 포맷을 갖춘 백화점이나 숍인숍(Shop in Shop) 스타일의 하우스징 패션의 전형적인 크기는 3만 평방피트이거나 그보다 큼
 - 백화점 매출의 70~75%를 패션상품이 차지함
 - 소비자들이 아주 바쁜 라이프스타일에 휘둘리고 있어 쇼핑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편리함을 추구함. 공항, 지하철 역, 카페, 뷰티살롱 등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곳에 매장 입점
- 트렌드 6: 디자이너 제품과 명품 구매 증가
- 인도는 45세 이하 인구가 81%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시장
 - 70~90달러의 고가제품이 인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여성의 경우 인도 디자이너 의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57%로 높았고 전체적으로 서양 디자이너웨어를 선택하는 경우는 5%로 낮았음.
 - 남성의 60%, 여성의 72%는 디자이너 의상을 백화점에서 사는 것을 선호함

<디자이너 제품과 명품 인도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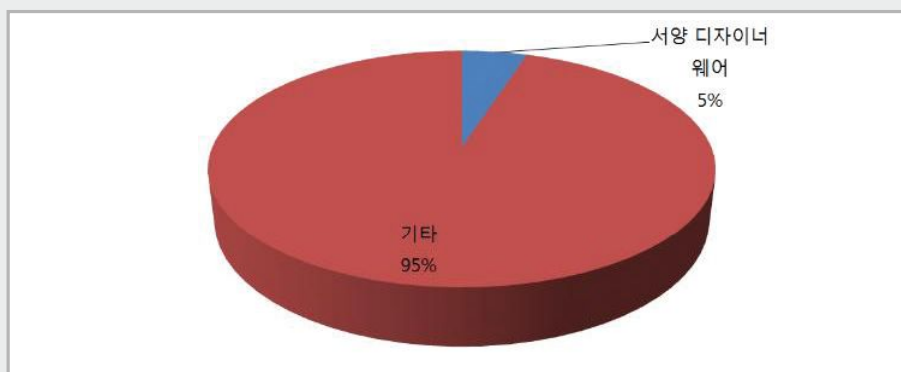
* 자료 : TKC

<여성 패션 디자이너 의상시장>



* 자료 : Fashion & Lifestyle

<패션 디자이너 의상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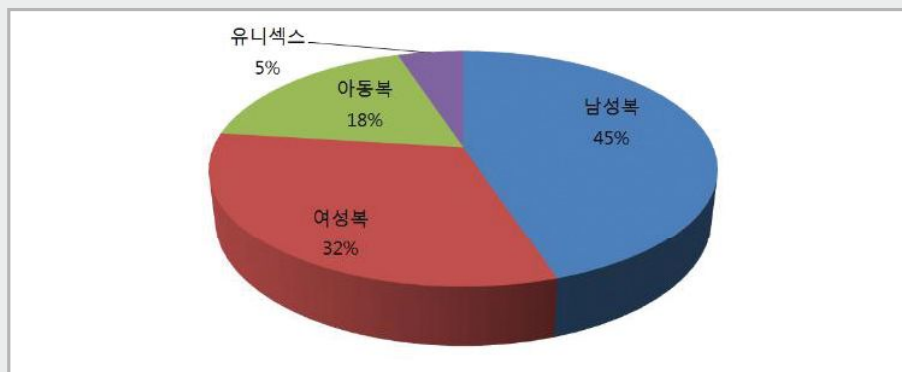
* 자료 : Fashion & Lifestyle

- 트렌드 7 : 소매업자들이 개발한 자사 브랜드(프라이빗 브랜드) 증가
 - Shopper Stop, Reliance, Pantaloon 등의 소매업체에서 의류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자사브랜드가 유통 중이며, 소매업자들이 서로 프라이빗브랜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 보임
 - 그만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리테일러들의 영향력이 제조업체보다 커짐

□ 인도 의류 소매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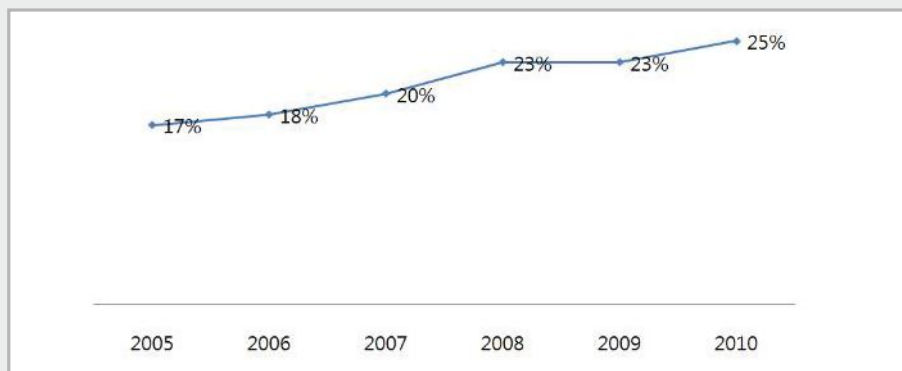
- 시장 분류 : 남성, 여성, 아동복으로 나눌 수 있음
 - 2008년 인도 의류시장은 290억불의 규모
 - 남성복은 45%인 100억 달러, 여성복은 32%인 90억 달러, 아동복은 26%인 75억 달러, 유니섹스는 5%인 30억 달러의 규모

<의류시장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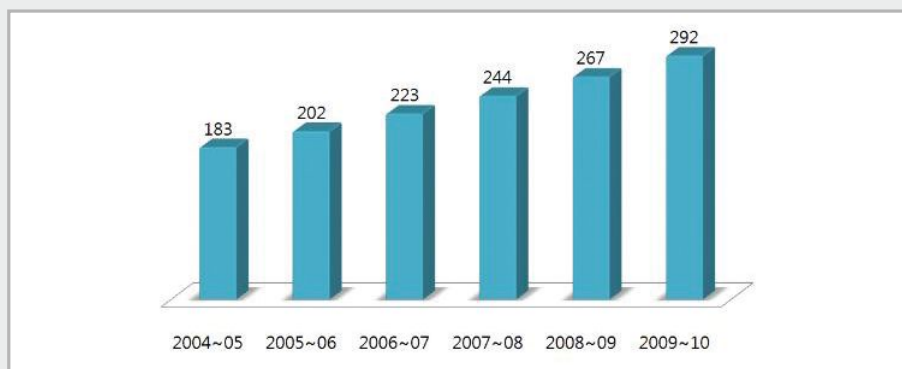
* 자료 : Fashion & Lifestyle

<의류 소매산업 성장률>



* 자료 : Fashion & Lifestyle

<인도 의류시장 매출 성장 규모 (단위 : 억달러)>



* 자료 : Dalamonitor

- 현대적인 매장 증가로 시장채널이 다양해져 의류산업에 봄이 일어남
 - 아직까지 백화점, 쇼핑몰, 전문 아울렛 등 현대적 매장에서의 구매는 전체의 14%인 40억 달러임
 - 아직도 전통적인 영세상점을 통한 구매가 총매출의 86%인 250억 달러를 차지하지만 현대적인 유통채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남성복
 - 전체 의류시장에서 100억 달러의 금액으로 전체의 45%를 차지, 그 중에서 셔츠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셔츠와 바지를 포함하면 60% 이상을 차지
 - 브랜드 제품이 23%, '08년부터 '10년까지 2년 동안 연평균 14.86%의 성장 기록
 - 파티용 텍시도, 셔츠, 바지 등 파티용 남성복시장이 급증함
- 여성복
 - 유행이 천천히 변하는 남성복 시장과 비교해서 시즌별로 디자인, 직물, 컬러, 스타일 등이 변함
 - 40% 이상의 인도 여성이 사리, 살와르 등과 같은 전통의상을 입을
 - 사리 등과 같은 전통의상 시장도 매년 15~17% 증가함. 사리시장은 37억8,000만 달러에 달함
 - W라는 브랜드는 직장인 여성을 위해 전통의상 살와르를 개량 판매해 틈새시장 개척에 성공했으며, 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함
 - 젊은 층의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평상복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는 못함
 - Celebrity Fashions Pvt Ltd, Arvind Ltd's, Indus-League Clothing Ltd, Provogue India Ltd 등의 인도 브랜드가 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아동복
 - 2008년 기준으로 75억 달러의 시장규모, 교복시장이 31억 달러이고 순수 아동복이 44억 달러임
 - 브랜드 업체는 7,070만 달러의 규모로 큰 점유율을 나타내지는 못함
 - Pantaloon, Raymond, Spykar, DS Corporation, Lilliput, Chun Mun, Milou 등의 브랜드 등이 진출함.
 - 인도 아동복 시장은 다양성과 가격에 민감한데, 특히 아이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중요한 포인트임
 - Benetton은 Pucca 캐릭터, Pantaloon은 디즈니 상품 사용 라이선스를 받았고, Lilliput 아동복은 최근 Cartoon 네트워크와 관련계약을 맺었음

- Reebok은 최근 Cartoon 네트워크와 Ben10, PowerPuff Girls, Johnny Brove, Dexter와 같은 애니메이션의 판권계약을 맺으려고 협상 중임
- 이런 계약으로 브랜드간 혼란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함
- 유니섹스 의류
 - 진웨어, 스포츠웨어, 캐주얼 자켓, 블레이저 등의 제품에서 남녀 공용의 유니섹스 제품이 늘고 있으며 매년 10%의 성장이 기대됨
- 스포츠웨어
 - 올림픽, 아시안, 2010년 커먼웰스 게임 등으로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 증가, 스포츠웨어 부문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며 2008년에는 62억 달러에 이르렀음
 - 인도 스포츠웨어 시장은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세계적인 브랜드가 장악
- 결혼 예복 시장규모는 8억5966만 달러인데, 추후 4년간 연평균 1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시사점

- 인도 시장에서 서구 의류들의 초기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20~40달러의 가격대는 인도의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에는 높았음
 - 인도인들의 체형과 선호하는 색상에 맞지 않음
 - 가전과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 한국의 의류, 내구 소비제품 브랜드는 거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공급해 타겟고객을 공략해야 할 것임
- 멀티브랜드 시장이 점차 개방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 필요
 - 월마트 등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집요한 요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멀티브랜드 시장 개방 압력, 인도 내 소싱 증가, 인도 정부의 인플레이 진정효과 등 긍정적 측면 감안
 - 단일 브랜드 소매의 경우 사전승인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함
- 현지의 높은 임차료, 열악한 인프라, 체계적인 공급망 부족, 훈련된 인적자원 부족, 재래시스템의 만연 등 인도 소매산업 진출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 필요
- 이랜드그룹, 인도 의류·직물 제조 3위 업체인 무드라 라이프스타일(Mudra Lifestyle)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인도 시장에 진출
 - 2010년 10월 21일, 인도 증시에 상장된 무드라 신주 25%(1200만주)를 주당 60루피에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 20%, 내년 1월 중순까지 대주주로부터 21%의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

- 인수 작업을 완료되는 내년 1월 이랜드가 확보 예정인 무드라 지분은 51~67%이며 인수 금액은 430억~530억원
- 1986년 설립된 무드라는 방직, 직물 제조, OEM 방식의 의류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한 회사로 40조원의 인도 패션시장은 물론, 중국 패션사업의 후방 생산기지로 활용할 계획
- 여러 제약으로 진출이 까다로운 인도 내수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기업의 인도 패션기업 인수 사례로는 최초로 주목받음
- 최근 인도에 진출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로 투자하는 방식에서 합작투자, 인수합병 및 자회사의 방식으로 변화
 - 2010년, 스페인의 다국적 패션 브랜드인 자라(Zara)는 타타 그룹의 계열사인 Trent와, 중국의 패션 브랜드인 이춘(YISHION)은 델리 기반의 업마켓 그룹(Upmarket Group)과 합작형태로 진출했고 한국의 이랜드 그룹도 지분인수의 형태로 인도 시장에 진출함
 - 2006년, 인도 정부가 단일 브랜드 소매업 부문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51%까지 허용한 이후 많은 브랜드들이 합작투자자로 전환하거나 다수 지분 보유(Majority-owned) 합작투자자로 진출했고, 2008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며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

2. 日, 동절기 내복시장 각축전

- KOTRA 일본 나고야KBC

- 독주하는 유니클로 VS 추격하는 의류업계

□ 유니클로, 히트텍 전용매장으로 공략

- 전 세계에서 누계 1억장을 판매한 유니클로의 히트텍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도오레와의 공동개발로 탄생함
- ‘두터운 겨울옷에서 해방’ 시키는 과제를 최첨단 섬유기술로 해결하여 따뜻함은 물론, 얇고 가벼우며 편안한 착용감을 실현시킴으로써 해외에서도 주목 받음
 - 특징은 흡습발열 효과가 있는 레이온과 높은 보습성을 지닌 아크릴, 속건성이 있는 폴리에스테르를 효과적으로 배합해 기존의 흡습발열 속옷과는 차별을 지었다는 것임
 - 몸에서 나는 수증기를 섬유가 흡착함으로써 ‘발열’ 하고 그 열을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기층에 가두어서 ‘보온’ 하는 구조임

<JR시나가와역과 신주쿠역 구내에 히트텍 전용매장>



- 유니클로는 경쟁 상품 중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차지하는 히트텍을 ‘연간 7000만장’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그 일환으로 10월 23일 JR 시나가와역과 신주쿠역 구내에 히트텍 전용매장 ‘UNIQLO POP UP STORE’를 한정기간 오픈함
-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 330만명인 신주쿠역과 약 80만명인 시나가와역 한복판에 전문매장을 만든다는 대담한 전략임
- 새로운 마케팅의 시도라고 할 수 있고 히트텍 만을 판매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이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이온, ‘히트팩트’로 켈러와 무늬로 승부

- TV 광고에 여성그룹 ‘SPEED’를 기용해 젊은 여성층을 타겟으로 삼고 이온 ‘히트팩트’를 출시함
- 섬유업체인 동양방과의 공동개발 상품으로 올 시즌은 착용감과 패션성을 추구
- 남성용 속옷은 작년 모델과 같이 보온성, 신축성을 유지하면서 약 10% 소재를 경량화 하였고 출퇴근시 지하철 내에서 발한을 예상해 제취기능을 첨가함
- 여성용 속옷은 소재를 바꾸어 기존의 상품보다 섬세한 레이온 섬유를 사용해 매끄럽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실현함
 - 마이크로나일론사를 사용한 레깅스는 얇고 따뜻하며 항균, 방취, 신축성, 정전기 방지기능도 갖춘
 - 여성용 레깅스의 아이টে를 대폭 보완시켜 무지, 라메, 체크무늬, 줄무늬 등 디자인을 늘리고 작년의 약 5배인 54색 무늬를 준비함



□ 월드, 더욱 부드러워진 ‘핫 비트’

- 보온성 속옷 중에서도 여성용 상품에 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촉촉한 느낌’에 주목함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복시장에 진출한 월드의 ‘핫 비트’는 여성용 상품에는 새롭게 대두된 콜라겐 배합 마무리제를 사용해 부드러운 소재감을 실현시켰으며, 기존의 여성용 6종류에 더해 남성용과 어린이용을 포함시켜 29종류로 다양화함
- 소재에는 흡습성이 강한 마이크로 모달이라는 극세 레이온사를 사용했고 몸에서 증발하는 수분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시킴으로써 따뜻해지는 발열기능 외에 항균·방취, 정전기 억제 기능을 갖고 있음
-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깊이 파인 목둘레, 여성스러운 실루엣 등 의류업체만의 디자인성을 추구함



□ 군제, ‘핫 매직’

- 2006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의 판매량을 증가시킨 군제의 기능성 속옷 ‘핫 매직’의 8~9월의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70%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흡습발열 기능에 더해 습기나 땀을 감지해 의복 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임
 - 불쾌한 습기는 내보내기 때문에 만원 전철 속에서 땀이 나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음
 - 올 시즌은 군제 오리지널 공기구조사로 변경해 발열온도가 약 20% 높아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15% 가벼워짐
- 기능성을 어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장에서 서모그래피를 통한 발열성 실험 등을 실시하며 교토의 공장에서 직물, 염색, 봉제까지 일괄적으로 자체 생산하는 것이 특징임

□ AOKI, 발열·단열 기능으로 따뜻한 ‘히트웍’

- 발열 및 보온 속옷인 ‘히트웍’ 시리즈를 10월 9일부터 발매함
- ‘히트웍’은 몸의 수분을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열기능’이 탁월한 속옷으로 얇고 덧입기 쉽고 따뜻해 2009년 F/W시즌은 전년대비 4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함
- 2010년 F/W시즌은 전 아이템에 방균·방취 기능, 여성용에는 보습 기능을 추가함

□ 시사점

- 독주하는 유니클로 VS 추격하는 의류업체
 - 보온성이 강한 기능성 속옷의 대표격인 유니클로의 ‘히트텍’은 지난 9월 16일부터 일본 국내 약 800점포에서 출시했고 방글라데시와 중국 등 해외의 생산체제를 강화해 전 세계에서는 올 F/W 시즌에 전년대비 40% 증가한 7000만장의 판매를 예상함
 - 대형 의류업체들도 히트텍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의 인기 걸그룹인 ‘AKB48’이나 여성그룹 ‘SPEED’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며, 판매망을 확대하고 의류업체의 강점인 디자인성을 어필하는 신상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구매 포인트는 피트감과 다양한 컬러
 - 내복은 해마다 진화하고 있음.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품질의 상품이 대부분이고 각 업체는 신축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과 두겹지 않고 겹으로 보여도 속옷 같지 않은 다양한 컬러를 선보임

- 의류업체들의 진출로 경쟁 심화, 가격 인하
 - 내복시장은 비슷한 상품들의 각축장이 돼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거나 불경기로 의류비 지출을 꺼리는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매력적인 PB(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월동준비를 끝낼 수 있을 것임

* 자료 :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1 면방산업 동향

대한방직협회

1. 생산 현황

- '10. 9월 사류 생산은 18,021M/T으로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9.3% 감소하였으며, 그 중 순면사는 11,915M/T으로 8.8% 감소
- 1~9월 누계로는 174,853M/T으로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하였음

구분	'10. 9월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누계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0. 1~9월	증감률(%)
사류(M/T)	18,021	△0.9	△9.3	174,853	5.3
순면사	11,915	△0.3	△8.8	113,005	2.3
직물류(천 m ²)	2,530	△5.0	△0.9	24,266	17.1

* 주 : 대한방직협회 회원사 기준

2. 면사 수출입 현황

□ 수출

- '10. 9월 면사 수출물량은 5,915M/T으로 전년동월대비 167.5% 증가, 1~9월 누계로는 38,959M/T으로 전년동기대비 85.6% 증가
 - 국내 로컬가격보다 국제가격의 고가 유지에 따라 순면CM사의 미국 및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호조로 작년 9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원면가격 폭등에 따른 국제 면사가격의 급등으로 수출단가 상승
 - 1~9월간 물량기준 주요 국가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 미국 61.0, 중국 49.3, 베트남 135.2, 과테말라 84.9, 홍콩 207.3
 - 1~9월간 물량기준 주요 국가별 수출비중(%)
: 미국 23.2, 중국 21.8, 베트남 12.6, 과테말라 12.4, 홍콩 12.3

'10. 9월		누계('10. 1~9월)	
물량(M/T)	금액(천불)	물량(M/T)	금액(천불)
5,915 (167.5)	23,063 (217.9)	38,959 (85.6)	151,446 (121.8)

* 주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입

- '10. 9월 면사 수입물량은 15,543M/T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감소하였으며, 1~9월 누계로는 204,655M/T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
 - 면편물 수출증가에 따른 수요증가로 작년 6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국제(수입)가격 급등으로 금년 9월 들어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주 수입국인 인도를 비롯하여 순면CM사는 중국, 순면CD사는 베트남으로부터 각각 수입이 급증한 반면, 내수가 급증한 파키스탄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 감소
 - 1~9월간 물량기준 주요 국가별 전년대비 수입 증가율(%)
 - : 인도 39.6, 중국 35.6, 베트남 30.4, 인도네시아 6.9, 파키스탄 △39.1
 - 1~9월간 물량기준 주요 국가별 수입비중(%)
 - : 인도 38.0, 중국 21.9, 베트남 18.2, 인도네시아 9.8, 파키스탄 7.2

'10. 9월		누계('10. 1~9월)	
물량(M/T)	금액(천불)	물량(M/T)	금액(천불)
15,543 (△20.1)	60,883 (16.1)	204,655 (21.2)	711,730 (63.5)

* 주 : ()는 전년동월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원료 현황

□ 세계 원면 수급 및 가격

- 금년시즌('10/'11년)의 세계 원면생산(25,280천톤)은 전년시즌대비 16.0% 증가하고, 소비(24,870천톤)는 1.0% 증가하여 생산이 소비를 약간 초과함으로써 기말재고(9,300천톤)는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ICAC 2010.11.16. 발표)
- 11월 16일 현재 세계평균 원면가(Cotlook A Index)는 162.60US\$/Lb로서 전년시즌대비 (77.54US\$/Lb) 109.7% 상승

(단위 : US\$/Lb)

구분	07.6	07.12	08.3	08.6	08.9	08.12	09.3	09.6	09.9	09.12	10.3	10.6	10.9	10.11.16
Cotlook A Index	64.10	71.60	74.90	80.35	67.80	57.20	53.05	60.85	63.55	78.45	85.25	NQ	113.40	162.60

* 자료 : 매월말 Cotlook Limited 발표 기준(NQ = Not Quoted)

□ Polyester Staple Fiber 가격

- 국제 원면가격 폭등에 따라 금년 3/4분기 이후 상승 추세, 11월 급등 예상

(단위 : US¢/Lb)

구분	07.6	07.12	08.6	08.12	09.3	09.6	09.9	09.12	10.3	10.6	10.7	10.8	10.9	10.10
국산(Local)	66.7	72.6	72.6	47.6	52.2	58.1	61.2	63.5	64.9	68.0	63.0	63.0	65.8	68.0

* 주 :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재생스테인플섬유 가격

- 국제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으나, 작년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11월 이후 급등 예상

(단위 : US\$/Kg)

구분	07.6	07.12	08.6	08.12	09.3	09.6	09.9	09.12	10.3	10.5	10.6	10.7	10.8	10.9
일반 레이온(대만) (HSK 5504109000)	2.03	2.92	2.64	2.29	1.86	2.05	2.27	2.31	2.56	2.63	2.70	2.69	2.56	2.56
폴리노직(오스트리아) (HSK 5504102000)	2.59	2.74	2.88	2.89	2.89	2.86	2.91	2.82	3.12	2.96	3.03	3.11	3.13	3.05
리오셀 (HSK 5504902000)	3.45	3.38	3.22	3.27	2.95	3.98	2.57	2.91	3.05	2.97	3.13	3.11	3.08	3.14

* 주 : 해당월의 수입통관 금액을 물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4. 면사 가격

- 국산 로컬가격은 작년 4/4분기 이후 국제가격이 급등하여 급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말 이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약세로 전환되었으나, 8월 하순 이후 원면가격 폭등, 인도 및 파키스탄의 Offer 가격 급등에 따라 재차 급반등 추세
-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금년 11월 중순 기준 CM 30수의 국산 로컬 호가 (Offer)는 1,000~1,050US\$/콘임

5. 순면 CM사의 수급 동향(2010. 7월)

- 생 산 : 전년동월대비 7.4% 감소(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 수 입 : 전년동월대비 19.6% 증가(작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시현)
- 수 출 : 전년동월대비 193.5% 증가(작년 9월 이후 증가세 지속)
- 재 고 : 전년동월대비 27.6% 감소(6~7월 급증후 재차 급락)
- 국내소비 : 전년동월대비 32.7% 감소(작년 1월 이후 최저)

6. 2011년 전망

□ 방적사 생산

- 금년말 방적설비 119만추에서 최신설비 15만추 증설로 내년말(134추)까지 생산능력 12.6% 이상 증가 예상

□ 면사 수출입 전망

- 수출 : 생산 증가, 수출단가 상승,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의 고가 유지로 수출 증대 예상
- 수입 : 국내가격보다 국제(수입)가격의 고가 유지로 금년보다 물량은 감소가 예상되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금액은 비슷한 수준 예상

2 화섬산업 동향

한국 화섬 협회

1. 생산

- '10년 1~9월 화섬 생산량은 1,088.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함. 9월 한 달은 124.7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1.1% 감소에 그침. 월별로 보면 약간의 등락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09년 8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품목별로는 폴리에스터 F가 직·편물류의 수요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증가한 558.4천톤, 폴리에스터 SF는 부직포, 방적용의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392.6천톤을 보임
- 그 밖에 나일론 F, 아크릴 SF는 하이텐션 니트, 타이어코드, 고밀도 직물, 건침장류, 보온용 속옷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4%, 31.7% 증가한 101.3천톤, 36.5천톤을 보임
- 9월 한 달의 생산은 폴리에스터 F가 62.9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0.9%, 폴리에스터 SF가 46.4천톤으로 8.1%, 아크릴 SF가 4.5천톤으로 4.6% 각각 증가를 보임. 반면, 나일론 F는 10.9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약보합을 보임. 전월대비로는 폴리에스터 F를 비롯한 모든 품목이 원료가격의 고공행진과 계절적 수요감소 등으로 약보합을 보임

<'10. 1~9월 화섬 생산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10. 1~9월(누계)		'10. 9월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폴리에스터	951.0	9.9	109.3	9.7	△0.7
F	558.4	12.1	62.9	10.9	△0.9
SF	258.5	8.0	43.8	5.0	1.4
나일론 F	101.3	3.4	10.9	-	△3.6
아크릴 SF	36.5	31.7	4.5	4.6	△2.1
합계	1,088.8	9.8	124.7	8.5	△1.1

* 자료 :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기준

2. 출하

- '10년 1~9월 화섬 전체 출하량은 생산 증가와 함께 1,090.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함

- 이는 국내 소비경기의 회복으로 내수(로컬 포함, 이하동)가 596.5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한데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수요회복으로 직수출이 493.5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9월 화섬 전체 출하량은 124.3천톤으로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3% 감소에 그침. 전체적으로는 '09년 8월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화섬 품목별 출하 및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출 하 계			
				내수	로컬	직수출
폴리에스터	F	'10년 1~9월	560.2	210.4	235.5	114.2
		전년동기비	9.9	△0.5	15.0	22.5
		'10. 9월	62.6	22.3	27.8	12.4
		전월비	△1.5	△5.5	2.9	△3.8
	SF	'10. 1~9월	394.3	57.3	17.7	319.3
		전년동기비	6.3	13.2	△5.8	5.9
		'10. 9월	45.9	6.9	1.9	37.1
		전월비	△0.2	4.5	5.5	△0.8
나일론 F		'10. 1~9월	99.5	23.0	39.0	37.4
		전년동기비	△2.3	△12.5	△5.3	9.3
		'10. 9월	11.0	2.8	4.1	4.0
		전월비	0.9	3.7	△2.4	-
아크릴 SF		'10. 1~9월	35.9	0.8	12.7	22.4
		전년동기비	25.0	-	△2.3	51.3
		'10. 9월	4.6	0.7	1.0	3.6
		전월비	12.1	600.0	-	20.0
합 계		'10. 1~9월	1,090.2	291.6	304.9	493.5
		전년동기비	7.8	0.8	9.7	11.1
		'10. 9월	124.3	32.2	34.9	57.1
		전월비	△0.3	△2.7	2.6	0.7

* 자료 : 한국화섬협회 회원사 기준

3. 수출입(통관기준)

□ 수출

- '10년 1~9월 화섬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4% 증가한 1,617.3백만불, 물량으로는 10.5% 증가한 770.7천톤으로 공히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임
- 국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이 전년동기대비 22.9%, 24.3%, 23.0%, 56.9%로 두 자릿수의 증가를 보인 반면, 파키스탄은 정경불안과 자연재해 등으로 3.7% 감소함

- 9월의 화섬 수출액은 환율하락과 주요국의 수요회복 지연, 긴축정책 등으로 전월대비 0.6% 감소한 185.3백만불, 물량으로는 0.7% 감소한 86.7천톤으로 공히 약보합세를 보임

<화섬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9월				'10. 9월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화섬F	824.9	26.4	241.0	3.9	93.3	△1.2	26.4	△2.2
PF	377.5	22.4	154.6	5.2	41.1	△6.2	16.7	△4.0
NF	238.0	37.3	49.2	2.1	28.3	4.0	5.5	-
Spandex	140.9	26.6	17.6	-	16.5	3.8	2.1	5.0
화섬SF	792.4	41.6	529.7	13.7	92.0	△4.2	60.3	△5.9
PSF	607.8	30.7	452.8	10.0	67.9	△7.0	50.4	△7.7
ASF	77.4	92.1	28.8	35.2	10.0	△2.0	3.9	2.6
화섬계	1,617.3	33.4	770.7	10.5	185.3	△0.6	86.7	△0.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통관기준이며 화섬SF에는 재생섬유 포함

<화섬 주요국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9월				'10. 9월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중 국	289.4	22.9	119.9	1.7	34.1	△6.8	14.2	△1.4
미 국	166.5	24.3	108.3	4.2	13.1	△25.1	7.5	△33.6
베트남	75.4	23.0	33.5	1.2	12.8	6.7	6.7	15.5
홍 콩	75	56.9	16.7	19.3	8.4	18.3	1.7	13.3
일 본	62.3	36.3	27.4	14.2	7.4	13.8	3.1	10.7
브라질	70.1	55.8	27.4	32.4	8.6	△7.5	3.3	△8.3
터 키	61.2	59.8	18.2	25.5	6.0	△4.8	1.7	0.0
독 일	56.1	48.8	32.9	22.8	6.6	△12.0	3.8	△13.6
인 니	49.1	25.9	17.2	△1.1	6.2	40.9	2.1	50.0
파키스탄	38.7	△3.7	22.6	△32.5	3.3	△17.5	1.8	△14.3
세계 계	1,617.3	33.4	770.7	10.5	185.3	△0.6	86.7	△0.7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입

- '10년 1~9월 화섬 전체 수입액은 690.0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58.4%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물량으로는 228.5천톤으로 48.7% 증가를 보임

- 국별로는 중국, 말련, 인니로부터는 저가품 위주로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72.9%, 151.3%, 63.9%로 각각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일본, 미국으로부터는 고부가제품 위주로 수입이 늘면서 11.1%, 108.6% 증가를 보임
- 9월 화섬 수입액은 76.4백만불로 전월대비 4.9% 감소했으며 물량으로는 24.4천톤으로 6.5% 감소를 보임

<화섬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9월				'10. 9월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화섬F	512.4	80.9	169.9	70.2	56.1	△4.2	17.4	△8.9
PF	226.5	117.2	119.7	83.6	22.0	△13.7	11.5	△12.9
NF	96.7	64.7	19.8	50.0	11.8	7.3	2.3	4.5
Spandex	29.5	32.3	4.4	22.2	3.8	△2.6	0.6	20.0
화섬SF	177.6	16.7	58.6	8.7	20.3	△6.5	7.0	-
PSF	5.9	47.5	2.7	12.5	0.7	75.0	0.4	100.0
ASF	5.6	5.7	1.6	△11.1	0.6	-	0.2	-
Rayon SF	79.4	11.0	28.2	-	9.8	2.1	3.4	3.0
Acetate SF	41.2	3.5	7.4	-	3.2	△28.9	0.6	△25.0
화섬 계	690.0	58.4	228.5	48.7	76.4	△4.9	24.4	△6.5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통관기준이며 화섬SF에는 재생섬유 포함

<화섬 주요국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불, 천톤, %)

품 목	'10. 1~9월				'10. 9월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전년 동기비		전년 동기비		전월비		전월비
중 국	235.2	72.9	83.0	67.3	26.9	△0.4	9.0	△2.2
일 본	66.9	11.1	12.4	4.2	6.3	△10.0	1.3	-
오스트리아	51.6	△4.6	17.4	△9.8	7.0	△10.3	2.3	△11.5
미 국	97.2	108.6	19.3	69.3	11.7	3.5	2.4	-
말 련	48.5	151.3	30.7	93.1	3.1	△42.6	2.1	△36.4
인도네시아	38.2	63.9	18.5	36.0	3.1	△36.7	1.6	△33.3
베트남	7.0	△12.5	3.4	3.0	0.5	△16.7	0.3	-
대 만	38.1	37.1	13.5	△9.4	4.3	2.4	1.4	7.7
세계 계	690.0	58.4	228.5	48.7	76.4	△4.9	24.4	△6.5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3 모방산업 동향

한 국 모 방 협 회

1. 원 료

- 최근 10월 이후 호주 양모 경매가격은 매주 최고가격을 갱신중이며 특히, 슈퍼 Fine 양모인 16.5마이크론과 17.5마이크론은 11월초 현재 한달전 대비 18.1%, 20.1% 급등중임
- Wool Top 수입은 9월 현재 중량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11,452톤을 나타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양모가격 상승으로 44.5% 증가한 130,468천불을 나타내었음
 - 양모가격 상승으로 Wool Top 평균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27.0% 상승한 11.39\$/kg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평균단가는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 Wool Top 수입동향

(단위: 천불, 톤)

구 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Top	121,686	13,315	90,293	10,065	130,468	11,452	44.5	13.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2. 생 산

- 소모사 및 소모직물 생산은 9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면서 소모사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9,274톤, 소모직물도 소모사와 마찬가지로 14,175천yd를 나타내었음

□ 생 산

구 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소모사(톤)	12,527	9,204	9,274	0.8
소모직물(천yd)	19,334	14,201	14,175	△0.2

* 자료 : 통계청

3. 수출입

- 모사 수출은 소모사에서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으로 25.3% 증가하였으나, 방모사 수출의 부진(31.0% 감소)으로 모사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금액기준 6.3% 감소한 22,137천불을 나타내었음
- 전체 모직물 수출은 9월 당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여 9월 누계로는 22,137천불을 보여 2.2% 증가에 그쳤음
 - 소모직물은 10.5% 증가하였지만, 방모직물은 11.6% 감소하였고, 소모직물의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 17,609천불(21.7%), 홍콩 2,559천불(41.2%), 인도네시아 1,173천불(441.8%), 미국 1,040천불(△32.1%)을 나타내었음

□ 모사 수출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계	27,663	2,443	23,612	2,078	22,137	1,475	△6.3	△29.0
소모	13,538	1,193	10,326	912	12,934	791	25.3	△13.2
방모	13,281	1,125	12,612	1,071	8,708	588	△31.0	△45.1
기타	844	125	674	95	494	96	△26.7	1.1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모직물 수출

(단위: 천불, 톤)

구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계	47,088	3,262	37,996	2,610	38,832	1,884	2.2	△27.8
소모	30,460	2,378	23,995	1,850	26,504	1,261	10.5	△31.8
방모	16,558	882	13,945	759	12,326	621	△11.6	△18.2
기타	71	2	56	1	3	1	△94.6	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S551513 T/W 모직물 제외)

- 모사 수입은 9월 현재 31,841천불을 보여 전년동기대비 76.1% 증가하였음
 - 소모사와 방모사는 각각 99.1%, 20.7% 증가
- 모직물 수입도 9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한 56,851천불을 나타내었음. 이중 소모직물은 27.3% 증가한 40,629천불을 보였고, 방모직물은 15,778천불을 나타내어 14.8% 증가하였음

- 소모직물의 국가별 수입을 보면 이탈리아 23,974천불(30.5%), 중국 10,144천불(35.2%), 일본 2,670천불(3.9%)을 나타내었음
- 완제품인 신사복 수입은 상반기까지는 부진하였으나 8월 이후 수입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23,788천불을 나타내고 있음

□ 모사 수입

(단위 : 천불, 톤)

구 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계	25,581	1,797	18,079	1,245	31,841	2,074	76.1	66.6
소 모	16,013	1,231	10,818	832	21,535	1,474	99.1	77.2
방 모	5,245	358	4,401	287	5,310	344	20.7	19.9
기 타	4,323	208	2,860	126	4,996	257	74.7	104.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모직물 수입

(단위 : 천불, 톤)

구 분	'09		'09. 1~9월		'10. 1~9월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계	57,915	1,314	45,805	1,023	56,851	1,268	24.1	24.0
소 모	41,594	903	31,918	695	40,629	775	27.3	11.5
방 모	16,096	387	13,750	317	15,778	453	14.8	42.9
기 타	226	24	138	11	444	39	221.7	254.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S551513 T/W 모직물 제외)

4 직물산업 동향

한 국 섬 유 직 물 수 출 입 조 합

유럽지역(독일 뮌헨 Fabric Start 전시회) 직물소재 동향

1. 2011 S/S 전시회 개최 현황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11 춘계 독일 패브릭스타트 전시회
(11-12 Spring/Summer Munich Fabric Start)
- 개최기간 : 2011. 2. 1(화) ~ 2. 3(목) / 총 3일간
- 개최연혁/주기 : 1995년부터 30회, 연 2회
- 참가업체 파견규모 : 40개사 약 90명
- 개최장소 : M.O.C MUNICH
- 홈페이지 : www.munichfabricstart.de
- 주요 전시품목 : 원사, 직물, 의류, 액세서리 등

● 전시회 주요 특징

-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중부 유럽 최대 섬유박람회로서 유럽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출품작품 전시 및 패션쇼 개최
- 아웃웨어용 직물, 기능성 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전시회 규모가 확대되면서 Eco-friendly 제품 등 섬유 직물류 전반에 걸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참가업체 및 바이어가 급증하고 있음
- 이태리,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EU 국가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참가하고 있음
- 전시회 지원 및 시설이 타 전시회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전시회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시관 구성

제품구성관	주 요 품 목
Collections	Woven, Knitted goods made from wool, Cotton, Silk, Satin, Functional Fabrics
Additional	Trims and Accessories(Buttons, Ribbons, Ornaments, Rhinestone, Labels)
Asiasalon	Entire Range of Asian Textile(Lingeries, Fashion, Sportswear, Woven, Knit Fabrics)
Bluezone	Denim, Sportswear

2. 독일지역 직물류 품목의 소재별 트렌드 및 수입동향

□ 의류 · 직물시장 동향

1) 전반적인 수입동향

- 독일의 의류시장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감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
 - 내수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독일 내 의류직물 제품의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문량과 매출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시장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 독일섬유직물조합에 따르면, 독일 내 의류직물 제품 가격은 지난 10년간 약 9% 하락했으며, 이 중 독일 국내산 직물제품은 2.3%, 의류제품은 5.4%의 가격하락 추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함
- 반면, 수입품의 가격이 더 많이 낮아졌는데, 직물이 6%, 의류가 9%의 가격하락이 이어졌던 것으로 집계됨
 - 독일 내 의류 및 직물산업의 주문량은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음. 의류직물 제품은 전형적인 소비재로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 증가, 사회복지제도 혜택의 감소 등으로 독일 소비자들의 개인지출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독일 의류 시장은 중저가 시장과 고급품 시장으로 양분화 되어 있으며, 독일 내 중저가 의류직물 시장은 중국산이 장악함
 - 중국산 제품은 중저가 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이며, 독일 내 의류직물 산업의 존재를 위협해 왔으나, 최근에는 독일 기업들이 중국으로 대거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함
- 그 외 중저가 제품 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큰 구매 결정요인이 되는 만큼, 수입가격이 낮은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들이 자체적으로 제품을 소싱하고 있음
- 반면 고급시장은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브랜드가 최우선시 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는 천연소재 제품이 선호되고 있음
- 독일의 의류 제품 수입대상국은 중국 외 동유럽 국가와 터키, 인도, 방글라데시에 집중되어 있으나, 한국산 수입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로 볼 때 향후 확대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품목별/소재별 수입동향

- 각 소재별로 독일 시장의 트렌드는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폴리에스터 제품은 기술발달에 힘입어 재질이 매우 좋아져 과거의 합성섬유가 갖던 싸구려 이미지를 많이 탈피하는 추세임
 - 최근에는 유명 디자이너들도 폴리에스터 제품을 원소재로 많이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톱브랜드에서도 여성용 속옷, 침구류 등에 사용함으로써 외형이 상하지 않으면서도 보관과 세탁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음
- 면 소재는 피부에 가장 유해가 적으나, 구김이 잘 가고 세탁 시 수축되는 단점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순면이면서도 합섬처럼 구김과 수축 현상이 덜한 소재가 속속 개발되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최근 독일 패션시장에서는 코듀로이가 복고풍 디자인과 함께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소재면에서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됨
 - 면과 캐시미어 등을 혼합,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여 여성용 정장에도 응용되고 있는 추세임
 - 라이크라 및 스판덱스와도 결합하여 활동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의류가 대거 등장하여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음
- 비스코스는 독일 소비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받는 소재 중 하나이며, 정장류에 소재로 많이 활용되면서 편직의류에도 사용되고 있음
 - 독일 소비자들은 비스코스 소재가 통기성이 좋고, 체온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며 피부에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면이나 울 소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린넨 소재 역시 실용성이 높아 독일 내 수요가 높고, 캐시미어와 실크는 고급품의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
- 기능성 섬유로는 마이크로파이버, 고어텍스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의류 및 가정용 직물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 중이며, 살균섬유, 체온조절 기능 섬유, 적외선 및 전자파 차단섬유가 곧 의류직물 분야에 응용되어 제품화 되고 있음

□ 가정용 직물시장 동향

- 독일의 최근 직물시장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로 어려운 실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내수는 위축되었고, 의류직물 제품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주문량과 매출이 감소되는 등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재 및 디자인 개발은 활발하여 원단 수입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독일의 직물수입 및 유통은 일반 제품과 유사하나, 중소 규모의 수입상이 서로 제휴하여 공동 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남독일 가정용 직물 공동구매조합이 그 좋은 예임
- 경기부진으로 매출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독일 가정용 직물시장은 지난해 제조량이 크게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생활 필수품인 침대보, 카펫은 가정용 직물 수입의 74%를 차지하고 있음
- 가정용 직물 시장의 마켓리더인 ADO사는 독일 뿐 아니라 자사브랜드로 유럽내 가정용 직물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등지에서도 활발히 생산하고 있음
 - ADO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가 보다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독일 가정용 직물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제품은 투명소재 제품으로 과일이나 꽃 디자인으로 자연미를 강조하고, 부드러운 색상에 금색이나 반짝임 등으로 포인트를 준 동양 스타일의 제품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임
 - 중국,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 이국문화에서 착안된 이른바 크로스 컬처(Cross Culture) 디자인 역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 독일 주택에 자동식 철문이 많이 보급되어 커튼이나 창문용 인테리어 소품의 수요는 차츰 줄어드는 반면, 식탁보는 꾸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식탁보의 소재로는 단연 면제품이 선두이며, 베이지, 연한 오렌지색 등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최근에는 세탁이 간편하고 보관이 쉽도록 면 소재에 합성섬유가 첨가되어 실용성을 갖춘 제품이 많이 등장하는 추세임
- 침대보는 면, 린넨, 폴리에스터 합섬 등의 소재가 대부분이며, 실크나 비스코스 등 고급 소재가 일부 판매되고 있음. 최근 들어서는 겨울 및 환절기용 비버, 춘하용 렌포스, 새틴소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5 염색산업 동향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1. 전반적인 동향

- 11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면사 품귀로 니트직물과 사염품목의 가동률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올해 중반기까지 염색업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가동률을 보여 설비를 증설한 업체가 많이 있으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에는 계속되는 면사파동과 환율하락 및 원부자재 가격상승으로 가동률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설비투자 업체의 경영애로가 예상되고 있음
- 염료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화공조제 가격 또한 인상추세에 있어 업체 원가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현장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2. 품목별 동향

□ 서울중부지역

- 화섬직물
 - 타 업종에 비하여 지속적인 가동상황을 보이고 있음
- 면직물
 - 전월보다 소폭 감소
- 니 트
 - 면사파동으로 전반적으로 가동률이 10~15% 감소되었으며 수출물량도 감소되고 있음
- 사 염
 - 전월보다 10% 이상 가동률이 감소되었음

□ 대구경북지역

● 폴리에스텔

- 현재는 수출오더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원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제직원단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음

● 나일론

- 원단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원사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상태임
- 원단부족 대비 수주오더는 과거 2~3만 야드였으나 현재는 10~30만 야드의 대형오더가 접수되고 있음

● 산자용

- 아웃도어 의류시장의 활성화로 수출이 양호하며 이에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음

● 니트

- ITY 싱글 오더가 줄고 레이온, 폴리, 면니트 품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로스(Loss)가 많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떨어짐
- 원단가격이 인상됨

● 사 업

-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 원사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부산경남지역

● 폴리에스텔

- 가동률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함(가동률 80% 정도)
- 인력수급 부족

● 나일론

- 가동률은 80% 수준

● 사 업

- 가동률은 90%로 양호하나 원사 구입에 어려움이 있음
- 인력수급 부족

3. 염색폐수 슬러지 육상처리 대책 절실

□ 현황

- 염색폐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장에서는 슬러지가 대량 발생되고 있으며, 동 슬러지를 현재 해양(바다)으로 배출하여 처리하여 왔음
 - '88년부터 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함에 따라 침출수 등의 육상오염이 심각하여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투기하여 처리하게 함
- 그러나 오랜 기간 바다에 슬러지를 투기함에 따라 해양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2월부터 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함

□ 문제점

- 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염색업체는 현재 마땅한 육상처리 방안이 없음
 - 현재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매립, 소각 방법이 있으나 매립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와 지속적인 매립장 확보가 필요하며 소각하는 경우 대기오염 및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염색업체 비용부담으로 전가됨
- 또한 업계에서 육상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려고 해도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어 처리할 수 없음

□ 대책

- 슬러지는 건조하는 경우 열병합 발전소나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법적으로 폐비닐, 폐타이어 등은 오래전에 연료화가 가능하게 법제화 되어 있으나 슬러지는 연료로 사용할 수 없어 연료화가 불가능함
- 슬러지를 육상에서 처리하고 또한 연료화할 수 있게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염색업계에서 '슬러지 연료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여 2011년 2월 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많은 애로사항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6 의류봉제산업 동향

한 국 의 류 산 업 협 회

1. 2010년도 의류제품 수출입 전망

□ 2010년 의류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27억불, 수입은 전년대비 26.9% 증가한 56억불 예상

- '10년 의류제품의 수출은 2,737백만불(추정), 수입 5,614백만불(추정)로써 2,877백만불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며, 지난해의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며 2008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의류제품

● 수출

- 의류 수출은 1,459백만불(추정)로 전년대비 17.6% 증가 전망
 - 편직제의류는 792백만불(추정)로 전년대비 13.9% 증가, 직물제의류 역시 646백만불(추정)로 전년대비 16.4%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경기회복에 따라 주요시장인 일본, EU,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이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미국 수출은 미국 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딤에 따라 감소세가 지속되어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 의류 수입은 전년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4,027백만불(추정)로 전년대비 24.7% 증가 전망
 - 편직제의류는 1,350백만불로 전년대비 25.4% 증가, 직물제의류는 2,548백만불로 전년대비 22.8%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입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기타 해외 소싱기지들이 위치한 국가(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들의 수입량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

2. 2010년도 의류업계 수출촉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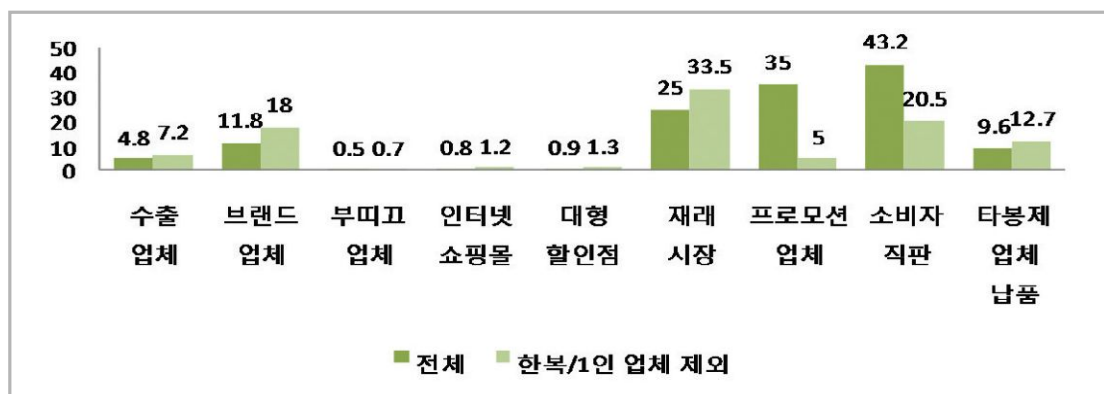
- 발효된 FTA 및 발효 예정인 FTA 원산지 기준 적극 홍보
 - 조사결과 관세특혜 수혜가 가능한 FTA 협정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기준 충족요건을 인지하지 못하여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수출 증대를 위해 각 국간 FTA 체결 현황 및 원산지 기준 충족요건, 앞으로 발효가 예정된 FTA에 대한 대회원사 적극 홍보 예정
- 미국 소비자 안전기준(CPSIA) 및 EU 제품 안전기준 공지
 - 중국산 납 함유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인해 강화된 미국의 소비제품 안전개선법(CPSIA) 및 EU의 REACH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겪는 의류 수출업체들이 발생
 - 각국의 강화된 환경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풀이 및 예시를 통해 대회원사 및 관련 업체 적극 홍보 예정

3. '2010 봉제업체 실태조사' 주요결과 ②

□ 유통 현황(납품처별 비중)

- 전체 10,488개 봉제업체의 납품처별 비중은 '소비자 직판' 이 4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재래시장(25.0%), 브랜드업체(11.8%), 타 봉제업체 납품(9.6%) 순으로 나타남
- 한복 및 1인 업체를 제외할 경우, 재래시장(33.56%), 소비자 직판(20.5%), 브랜드업체(18.0%), 타 봉제업체 납품(12.7%) 순으로 전체 납품처별 분포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특히, 브랜드업체, 재래시장 납품비중은 11%→18%, 25%→33.5%로 증가했으며 소비자 직판은 43.2%→20.5%로 감소함. 이는 아래와 같이, 한복 및 1인 업체(3,871개사)의 대다수가 소비자 직판(81.9%)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유통현황 - 전국 (단위 : 개)>



<유통현황 - 전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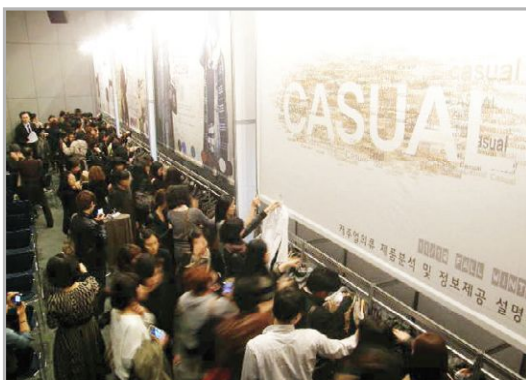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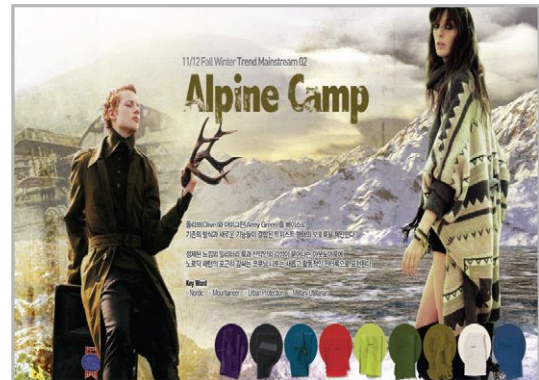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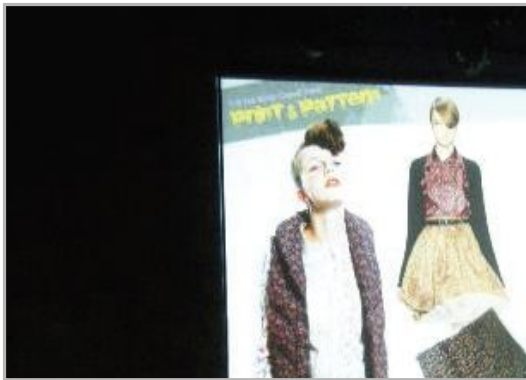
구 분		수출	브랜드	부띠끄	인터넷 쇼핑	대형 할인점	재래 시장	프로 모션	소비자 직판	타봉제 납품
전국	전 체 (10,488개)	4.8	11.8	0.5	0.8	0.9	25	3.5	43.2	9.6
	한복/1인 제외 (6,617개)	7.2	18	0.7	1.2	1.3	33.5	5	20.5	12.7
	한복/1인 (3,871개)	0.7	1.3	0.2	0.1	0.1	10.5	1	81.9	4.3
서울	전 체 (5,038개)	6.4	16.2	0.7	0.9	0.8	37.6	5.5	20	12
	한복/1인 제외 (4,003개)	7.4	19.4	0.8	1.1	0.9	42.2	6	9.3	12.9
부산	한복/1인 제외 (6597개)	3.6	12.9	0.8	2.9	2.3	25.2	3.9	35.4	13.1
경기	한복/1인 제외 (5957개)	13.7	23.6	0.8	1.1	2.2	20.5	4.6	19	14.4
대구	한복/1인 제외 (4467개)	6.8	7.7	0.2	0.5	2.1	29.9	3.2	32.2	17.3
인천	한복/1인 제외 (1537개)	10.5	27.8	0	0.5	1.6	9.1	5.9	26.5	18.1
전북	한복/1인 제외 (1437개)	5.1	45.4	0.7	2.3	3.5	6.4	1.2	23.4	11.9

- 한복 및 1인 업체를 제외할 경우, 서울은 수출업체(7.4%)와 브랜드업체(19.4%)의 납품 비중이 높고 동대문, 남대문 등 재래시장(42.2%)을 중심으로 봉제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수출업체 납품비중(13.7%, 10.5%)이 높게 나타남. 브랜드업체에 대한 납품은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부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브랜드업체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재래시장이 전체 납품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42.2%), 경기도(20.5%), 대구(29.9%), 부산(25.2%) 등 각 지역의 시장상권에서 오더를 수주받는 업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프로모션 납품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른 납품처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함

4. 'ODM 개발을 위한 의류샘플 제공사업' 하반기 '11/12 FW 캐주얼 의류 제품분석 및 정보제공 설명회 개최

- 10/18(월)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해외(미주·유럽) 마켓동향 및 현지구입 트렌드 제품 분석정보 제공을 위해 「'11/12 FW 캐주얼의류 제품분석 및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 업체 80여개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되었음

- 금번 설명회 1부 '11/12 FW 디자인 트렌드'에서는 '11/12 FW 시즌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짚어야 할 트렌드 방향을 3가지 테마(Smart Transformer, Alpine Camp, Urban British)로 나누어 각 테마별 컬러, 스타일 및 포인트 디테일을 제안하였고, 2부에서는 신규 트렌드 제품 205점을 전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진행과 순서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실질적,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주된 평이었음



5. 해외 선진의류 샘플대여 및 정보제공 현황

□ 10월 샘플정보실 대여 분석

●대여현황 및 품목

- 총 13개 업체 / 165pcs 샘플대여(의류 : 157pcs / 도서 8권)
- 여성 자켓 > 여성 스웨터 > 남성 스웨터 > Knit 순

□ 주요 샘플 대여업체의 샘플활용 분석

●누리안

- 회사 정보 : 여성 Knit(Tops & Dresses)를 수출하는 업체로, 미국 내 대표적인 여성 속옷 브랜드 V사 등 20~40대 여성을 Focus로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음
- 대여 실적 : 월 1~2회 / 회당 15pcs 대여
- 호응도 높은 샘플

품 목	비고
11SS-WJ-041	Paris에서 구매
	네크와 소매부분을 게더와 셔링 디테일로 디자인한 것에 주목. 업체에서는 원단을 바꾸어 다른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개발하는데 주력
11SS-WSH-031	Paris에서 구매
	Knit Vender 업체이기 때문에 우븐 디자인을 니트원단으로 바꾸어 진행함. 이유는 니트원단이 만들어내는 디테일과 느낌을 Buyer가 선호하기 때문. 추후 니트류와 드레스류의 수량을 늘렸으면 함

7 패션산업 동향

한국패션협회

1. 패션 유통 동향

- 명동 패션 매장 'H&M' 효과
 - 명동에 1, 2호점을 오픈한 H&M 덕분에 인근 패션 브랜드 매출 상승
 - ABC마트 H&M 오픈 이후 약 한 달간 매출 전월대비 46% 신장
 - H&M코리아 내년 봄 신세계 인천점과 천안점에 입점
- 스페인 SPA 브랜드 '스프링필드' 유통 다각화 전념
 - 연내까지 압구정동 로테오거리에 165㎡ 규모 직영점 오픈 예정
 - 2015년까지 60개 매장에서 450억원 달성 목표로 브랜드 전개 방침
- 유통업계 G20 분위기 띄우기 마케팅
 - 제일모직 정장 갤럭시 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정장의 스타일'이란 컨셉으로 리더를 위한 정장 5가지 스타일로 구성된 '갤럭시 프레지던트 라인' 출시
 - LG패션 '마에스트로'는 최고의 전문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각 나라의 특성과 대표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 4인에게 맞는 최적의 수트를 공동 제작
 -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헤드'는 바람막이와 다운, 내피로 구성돼 5가지로 연출이 가능한 트랜스로더 재킷을 출시

2. 복종별 동향

- 아웃도어 공격적 마케팅 돌입
 - 아웃도어업체 등산시즌을 맞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마케팅 돌입
 - 네파, 코오롱스포츠, 케이투 등 하반기 마케팅 비용 전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난 30~60억원에 달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 돌입
- 여성복 대형사 내년 공격 경영
 - 대현, 신원, 인디에프 등 여성복 대형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 대현: 내년 브랜드별 성장 전략과 함께 신규사업 런칭 예정

- 신원 :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 여성복 ‘아이엔비유’ 재런칭 준비
- 인디에프 : 내년 스포츠웨어 ‘프레디’, 여성복 ‘테이트우먼’ 런칭 예정
- TD캐주얼, 올 겨울 패딩 점퍼로 매출 상승 기대
 - 다양해진 스타일과 쿼터 패딩 스타일 제품이 대거 출시되면서 슬림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베스트 아이템으로 부상
 -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계층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TD캐주얼 브랜드들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매출 상승 기대
 - 제일모직 ‘빈폴’ : 작년보다 패딩 점퍼 물량 두 배 이상 증대
 - LG패션 ‘헤지스’ : 다이아몬드 쿼터 점퍼와 코듀로이 배색 등 빈티지 느낌의 패딩 스타일 제안
 - 동일드방레 ‘라코스테’ : 다양한 색감의 쿼터 패딩 점퍼 제안
 - SK네트웍스 ‘타미힐피거’ : 빈티지 컨셉에 맞춘 제품 제안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헨리코튼’ : 파일럿 코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선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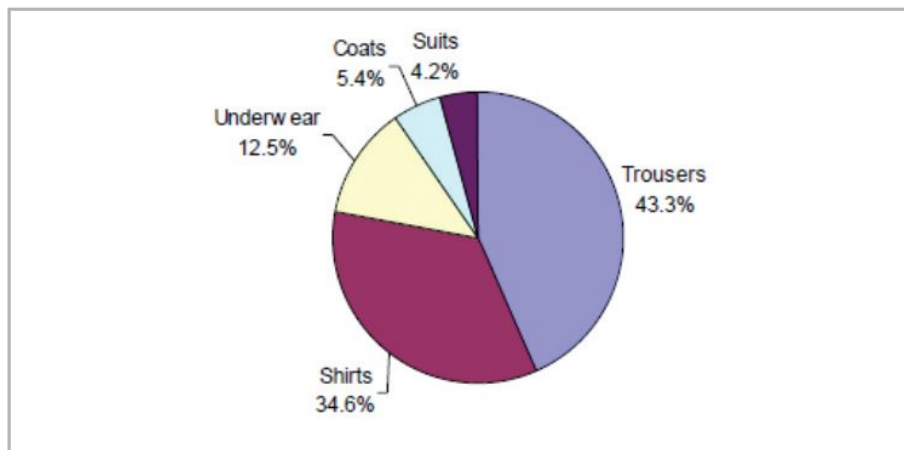
3. 패션업체 중국 시장공략 현황

- LG패션 중국 사업 속도 가속
 - LG패션 TD캐주얼 ‘헤지스’ 로 중국 시장 공략 시작, 최근 라푸마와 마에스트로까지 진출
 - 헤지스 : 현재 50개 매장 구축, 연내 65개까지 늘릴 계획
 - 라푸마 : 지난 시즌 프랑스 라푸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 현지 운영
 - 마에스트로 : 최근 항주 대하백화점에 매장 오픈, 여성복 및 잡화브랜드로 중국 진출 검토중
 - 내년에는 중국 사업으로만 1천억원대 매출 목표 계획
- 더베이직하우스, 홍콩 증시 상장 추진
 - 더베이직하우스 중국 시장의 성공에 힘입어 홍콩 증시 상장 추진
 - 베이직하우스, 마인드브릿지, 아임테이비드 3개 브랜드로 700개 매장 확보, 매출 1,650억원 달성 계획

4. 인도 남성 의류시장 현황

- 인도 중상층의 소득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와 남성 쇼핑 문화의 변화로 남성복 수요 증가
- 인도 남성복 시장은 맞춤복에서 점차 기성복 시장으로 빠르게 변하며, 특히 작년에는 스마트 캐주얼 부문이 정장 부문보다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바 있음
- 과거 정장 소비가 높았던 인도 남성들이 최근 캐주얼 의류 구매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증가와 남성복 시장의 세분화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인도 남성복 구성 현황>



* 자료 : Datamonitor, August 2008

- 몇년 전만 해도 남성 기성복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우위를 차지했으나, 점차 인도 국내 브랜드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함
- 인도 남성복의 기성복 시장은 '09년도 기준 500억 루피(약 11억불) 규모를 형성하며, 연평균 20~40%로 빠르게 성장함. 특히, '10. 6월부터 8월까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바 있음
- 인도 의류시장은 여성복 비중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남성복이 49.7%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며 여성복 44.5%, 아동복 5.8%로 구성됨
- 인도 주요 남성 브랜드
 - 현재 인도 남성복 브랜드 시장은 K Raheja Corp Group, Future Group, Tata Group 등 대기업 계열 유통 브랜드들이 주로 점유
 - 대기업들은 인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 브랜드인 Shopper's Stop, Pantaloon, Westside를 운영하며, 이 브랜드들은 남성복은 물론 여성복, 아동복, 이너웨어 등을 갖춘 토털 의류 브랜드임

- 대형 유통 브랜드들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의류, 신발, 속옷, 잠화 등을 갖춰놓아 한 번에 쇼핑이 가능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어 남성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쇼핑 공간임
- Raymond는 원사 및 원단부터 의류 생산까지 일괄 생산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특히 남성 정장에 주력하며 Park Avenue, Parx, ColorPlus, Manzoni, Zapp 등의 브랜드를 런칭함
- Raymond의 정장은 한 벌에 약 5천~1만 루피 정도로 인도 소비자들에게 고급 브랜드로 인식됨
- 그 밖에도 Van Heusen, LouisPhilips, Provogue, Allen Solly, Arrow, Le Copper, Wills Lifestyle, Peter England 등이 중상층 남성들이 애용하는 브랜드임

<Raymond사의 남성정장 브랜드 'Raymond'(좌)와 캐주얼 브랜드 'Parx'(우)>



* 자료 : www.raymondindia.com

8 패션소재산업 동향

한 국 패 셴 소 재 협 회

□ 2010 Intertextile Shanghai 전시회 동향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China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Apparel Fabrics and Accessories
- 개최기간 : 2010. 10. 19(화) ~ 10. 22(금)
- 개최장소 :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 홈페이지 : www.messefrankfurt.com.hk
- 참가규모 : 총 21개국 2,471개 업체
- 전시분야
 - Product Groups
 - : Fabrics(Cotton, Wool, Silk, Linen, Ramie, Man-made, Knitted, Coated), Lingerie & Swimwear Fabrics, Functional Fabrics, Printed Fabrics, Fibres & Yarns, Embroidery & Lace, Accessories, Design & Styling Agencies, Textile-related CAD/CAM/CIM Technology, Fashion & Textile Trade Publications
 - Application Areas
 - : Suitings, Casualwear, Ladieswear, Functional wear & Sportswear, Shirtings, Jeanswear, Accessories, Children & Infants wear, Swimwear & Lingerie

- 지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상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인터텍스타일 전시회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 105개국 5만여명의 바이어들과 기대이상의 상담 및 계약실적을 올려 하루가 다르게 급팽창하는 중국의 섬유소재 시장규모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한국 71개사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52개사, 대만 135개사, 일본 61개사, 태국 13개사 등 20개국에서 참가하였으며, 중국 내수시장이 팽창하면서 중국에서 소비되는 소재가 아시아권을 떠나 세계화 되어 향후 시장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었음
-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최측인 메세프랑크푸르트와 넬리로디가 함께한 트렌드 포럼관과 함께, 일본과 한국, 이탈리아에서 각각 트렌드 포럼관을 전시하여 내년 추동 시즌 트렌드 경향을 보여주어 방문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음

□ 전시관 소개

● W1 - International Hall

- W1홀에는 한국관과 이탈리아, 독일, 태국, 대만, 터키, 중국관이 모여 전시되었고 W2홀과 함께 가장 많은 관람객들로 붐비 많은 호응을 얻었음

● 한국관

- 영도벨벳, GB텍스타일, 루디아, BJ실크, 아화텍스타일, 한모실크, 킹텍스 등 총 71업체가 참가하였음. PIS와 PID를 통해 소재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한국 소재들이 중국의 패션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직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참가업체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W2 - International Hall

- W2홀에는 일본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인도관, 그리고 트렌드관이 자리하였음. 일본관은 트렌드관을 중심으로 TOYOBO사, MORIRIN사, TORAY사에서 대형관으로 참가하였고, 효성그룹에서 거대한 규모의 부스로 참가하여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선보였음



□ 포럼관 소개

● Korea - W1 Hall

- 한국관 중앙에 위치한 트렌드 포럼관은 2011-12 F/W 시즌을 겨냥한 4개의 테마로 이루어졌으며 C&T Union에서 기획하였음. 이번 포럼관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한국 소재업체들의 바이어 상담에도 도움을 주었음



Theme1 Dreamlike Memories

꿈결같이 부드럽고 희미한 인상과 마치 동화속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정적인 여성스러움을 완성한다.

- Pure&Sheer Appearance, touch of Skin
- Delicate Silk & Crepe, Fuzzt Wool, Sheer Knit, Embo Lace



Theme2 Glam Goth

음산하고 어두운 중세의 분위기들이 우아하면서도 신비롭고 색슈얼한 감각의 연출을 통하여 매력적으로 전개된다.

- Dramatic Tactile, Smooth & Slick Surface
- Glossy Satin, Smooth Velvet, Metallic Jacquard, Cushiony Jersey, Fur



Theme3 Northern Nomad

북유럽의 자연풍경과 새롭게 재발견되는 조상의 흔적들을 통해 자유로운 북유럽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을 받는다.

- Warm & Rough Touch Untreated Texture
- Military Cotton, Cotton Blends, Gigantic Corduroy, Vintage Leather, Mustang



Theme4 Sports Couture

미래적인 하이테크 감성과 실용성의 적절한 혼용을 통해 활동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아웃도어가 제안된다.

- Unexpected Function, Protective tech
- Silk Like, Lightweight Cire, Natural Blends, Functional Synthetics



□ 전시회 종합분석

● 전시회 현장 르포

- 인터텍스타일 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섬유 관련 전문박람회로서 1995년 개최 초기의 4,000㎡에서 16년간의 성장을 통해 2010년 전시면적은 115,000㎡(총 10개홀 이용)에 달하였음
- 이번 인터텍스타일 박람회는 20개국 2,472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터키, 이탈리아, 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관을 구성하였으며, 한국관은 삼일방직, 텍스빌, 남강직물, 시닉, 유림텍스타일 등을 포함한 71개사가 참가해 중국과 유럽, 미주 등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음

● 한국관 주요 전시품목 동향

- 한국관 참가업체들은 니트, 면,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스터, 실크, 인조가죽 등 전시품을 출품하여 많은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음

● 박람회 성장성 및 참가현황

- 추계 상하이 인터텍스타일 국제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섬유관련 박람회이고 전문성과 무역성 원칙으로 매년마다 신속히 발전하고 있어 참가업체 및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
- 상하이 인터텍스타일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섬유 관련 박람회이고 또한 Intertextile은 한 개의 브랜드를 형성하여 상하이뿐만 아니라 북경, 심천에서 춘계 인터텍스타일이 개최되고 있음
- 한국, 독일,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 국가관이 참가하였고, 총 55,0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관하였음

9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I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

- 대구경북지역의 2010년 섬유경기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선진국들의 소비심리 개선과 중국,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의 원부자재 수요증가 등의 작용과 아울러, 지역업체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R&D, 마케팅 활동 등으로 인하여 호전되었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올해 섬유수출 28.4억불(전년대비 21.2% 증가)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임
- 대구경북지역의 2010년 9월까지 섬유류 수출실적 누계는 2,093백만불로서 전년대비 23.0% 증가, 전국의 섬유류 수출실적 누계는 전년대비 18.5% 증가한 10,058백만불을 기록하였음

<월평균 섬유류 수출추이>

(단위: 백만불, %)

구분	'07	'08	'09 1~2	3~4	5~6	7~8	9~10	11~12	'10 1~2	3~4	5	6	7	8	9
대구경북	204	230	152	198	197	198	210	218	196	252	249	247	256	222	222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11.1	12.7	-27.6	-20.2	-20.6	-19.1	-11.0	14.2	28.6	27.4	31.1	21.6	18.7	26.5	3.1
전국	1,121	1,110	735	1,025	958	989	1,041	1,069	901	1,205	1,155	1,212	1,311	1,053	1,113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트로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가공), 2010. 9.



- 수출 주요국별 전년대비(1~9월 누계) 주요 특징을 보면,
 - 대구지역에서는 미국이 니트직물, 폴리에스터직물에서 수출의 주류를 이루면서 장갑, 드레스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26.8%(20.7백만불) 증가, 터키는 니트직물, 폴리에스터직물을 중심으로 70.1%(12.9백만불) 증가, 인도네시아도 니트직물, 폴리에스터직물을 중심으로 51.0%(12.4백만불)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 경북지역은 미국이 섬유원료, 원사, 타이어코드지, 장갑 등을 중심으로 39.1%(29.5백만불) 증가, 일본은 원사, 부직포, 타이어코드지 등을 중심으로 38.6%(21.4백만불) 증가가 있었으며, 터키는 원사, 니트직물, 타이어코드지를 중심으로 57.5%(20.1백만불) 증가를 나타냈음

<주요국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구 분		중국 (1위)	베트남 (2위)	미국 (3위)	인도네시아 (4위)	홍콩 (5위)	일본 (6위)	아랍연합 (7위)	터키 (8위)	사우디 (9위)	브라질 (10위)
대구	2007년	186.6	62.2	135.5	38.8	103.3	45.4	99.1	25.3	51.0	17.4
	2008년	192.1	63.9	123.3	40.5	88.6	46.1	132.1	25.7	71.4	20.9
	2009년	160.8	63.5	102.8	34.6	74.7	36.3	125.8	25.9	50.1	20.7
	'09년	7월	14.9	4.0	9.7	3.2	6.6	2.6	13.3	2.9	6.5
		8월	10.0	4.0	6.5	2.2	5.3	1.4	9.1	2.0	3.0
		9월	12.5	6.5	8.2	2.4	5.8	3.3	10.9	3.2	2.9
		년누계	117.2	44.4	77.0	24.4	51.7	25.7	93.2	18.3	41.4
	'10년	7월	16.4	6.2	11.1	3.0	6.5	4.8	13.6	5.1	7.4
		8월	11.6	4.9	10.9	3.0	5.6	2.5	10.4	3.6	4.6
		9월	10.4	7.4	8.9	4.1	6.0	2.6	9.4	2.9	4.4
		년누계	129.0	51.6	97.7	36.8	57.5	28.0	101.6	31.2	50.4
경북	2007년	225.2	52.4	171.5	69.5	51.6	29.1	48.3	71.4	45.0	44.7
	2008년	261.4	64.3	171.0	97.0	49.3	34.8	61.7	59.8	57.8	47.4
	2009년	234.4	68.0	102.2	80.6	53.0	40.3	64.2	48.4	47.7	40.8
	'09년	7월	23.5	5.9	6.9	6.2	4.9	3.1	5.9	4.8	6.6
		8월	20.9	5.6	7.9	6.4	4.3	3.3	5.1	4.6	3.7
		9월	22.0	6.6	8.7	3.2	5.2	7.1	5.9	5.4	4.2
		년누계	175.6	45.1	75.5	31.0	36.9	55.4	49.0	34.9	36.7
	'10년	7월	23.1	4.9	12.7	8.7	4.4	4.6	7.5	7.1	6.7
		8월	18.4	5.7	12.4	14.1	4.2	3.1	7.5	6.3	5.5
		9월	20.3	7.2	9.2	4.5	4.2	9.1	6.3	5.5	4.4
		년누계	186.4	49.2	105.0	35.3	42.4	76.8	59.9	55.0	46.3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공공), 2010. 9.

- 대구경북지역의 주요 직물별 전년대비(1~9월 누계) 수출실적은 폴리에스터직물이 수출금액 12.2%(56.9백만불) 증가한 522.4백만불, 단가에서는 3.2% 상승을 기록하였음
- 니트직물은 수출금액이 22.3%(39.8백만불) 증가한 218.6백만불, 단가에서는 5.8% 상승하였으며, 지역 섬유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는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증가되었음
- 나일론직물은 수출금액이 24.2%(6.0백만불) 증가한 30.6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수출 단가도 5.3% 상승을 기록하였음

- 복합교직물은 수출금액이 23.3%(12.6백만불) 증가한 66.6백만불, 단가에서는 2.4% 상승을 기록하였음

<품목별 섬유류 수출실적>

(단위: 백만불, %)

구 분		'07년	'08년	'09년	2009년				2010년					
					7월	8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전년비	1~9월	전년비
섬유원료		384.8	432.9	334.4	28.6	26.6	32.5	234.4	36.1	36.1	34.0	4.5	311.0	32.7
섬유사		352.0	475.3	430.3	40.9	39.0	41.2	310.8	44.9	41.9	42.8	4.0	388.8	25.1
직 물 류	나일론	36.2	38.9	31.9	2.9	1.7	2.3	24.6	4.2	2.9	2.6	14.2	30.6	24.2
	폴리 에스터	677.5	734.5	628.3	63.1	44.3	54.5	465.5	67.7	50.4	50.5	-7.5	522.4	12.2
	복합 교직	99.4	92.7	75.2	7.2	5.4	6.3	54.0	7.6	7.7	7.2	13.8	66.6	23.3
	면직물	128.6	99.2	86.4	7.8	5.2	8.9	60.9	9.2	8.9	9.7	8.9	77.2	26.6
	니트	251.8	260.5	238.8	21.5	17.2	21.0	178.8	27.7	21.6	22.3	6.4	218.6	22.3
	기타	363.7	464.1	379.5	30.8	29.1	34.8	275.0	41.6	38.0	38.4	10.1	345.5	25.6
	계	1,557.2	1,690.0	1,440.0	133.3	103.0	127.9	1,058.9	158.0	129.5	130.7	2.2	1,260.8	19.1
섬유제품		151.2	156.8	137.7	13.4	11.1	13.5	98.0	17.5	14.5	14.3	5.9	132.6	35.4
섬유류 합계		2,445.3	2,755.0	2,342.4	216.2	179.8	215.1	1,702.1	256.5	222.0	221.8	3.1	2,093.2	23.0

* 주 : 품목분류는 MTI코드 기준, 복합교직물은 기타합섬직물(434300), P/C직물(435110), 기타 폴리에스터직물(435190), 혼방재생단섬유직물(435990)을 포함

*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텍스토피아 통계자료(한국무역협회 자료제공), 2010. 9.

- 생산부문은 오더량 증가가 성수기와 비수기에도 지속되었던 관계로 인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이 전개되었음
 - 그러나 생산설비 운영은 오더량 증가, 그리고 다품종 소량생산, 고밀도 박지직물 생산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인하여 설비부족 현상이 가중되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생산량 증가와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이 있었음
- 재고운영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요증가와 함께 재고소진이 시즌 변경과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인력수급은 그동안 기업인턴제 등 공공부문의 인력지원사업, 자체구인 등을 통하여 충원되었으나, 가동률의 증가와 생산분야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자금사정 및 채산성에서는 매출증가로 인해 그동안 자금회전은 다소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산성에서는 원부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등의 인상과 함께 환율 변동으로 다소 불안정한 현상이 나타났음

10 대구경북 섬유패션산업 동향Ⅱ

한국염색기술연구소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인 (주)에스티원창은 지난 30여년 동안 생산기술의 혁신과 고품질 신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기능성 경량 아웃도어의 세계화 시장 개척자인 동시에 가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1976년 모회사를 설립한 이래, 고도로 숙련된 인력과 최첨단 설비기술을 바탕으로 4개의 자회사, 3개의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168억원 매출을 내고 기능성 경량 아웃도어 및 의류용 직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자체상표 및 다양한 국제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음
- 자체등록상표 'ZENINTEX' 을 대표로 광범위한 Woven Textile을 제공하고 있음
 - 100% Polyester, 100% Nylon, 100% Cotton, Nylon/Polyester Mixed Fabric, Nylon/Cotton Mixed Fabric, Wide Range of Stretch Woven Fabric 등
- 보유 인증서
 - ISO 9001 & 1401, 벤처기업, INNO-BIZ, 에코텍스100, 스타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 주요 아이템 소개
 - 미국 Dupont Nylon 원사를 사용한 Premium Quality Fabrics
 - 듀폰사의 고유 브랜드 TAG - COOLMAX, TACTEL, LYCRA, CORDURA, SUPPLEX 의 Hang Tag이 발급되는 직물
 - 초고밀도, 초경량의 TAFFETA Fabrics
 - 20 denier, 30 denier, 40 denier Nylon 원사를 사용한 스포츠, 캐주얼, 아웃도어용 직물
 - 미국 Dupont사의 고신축 원사를 사용한 Stretch 면직물(Lycra Tag 발행)
- 제품개발 방향
 -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 밀도 300T급 박지류 Nylon/Silk 교직물, Nylon/Silk/Wool 교직물 개발
 - 헬스케어 분야의 쾌적성 및 항균성을 보유한 박지류 직물 개발
 - 스포츠 의류용 패션 제품의 기초연구 확대 및 기술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 및 특허
 - 연구개발

- 나일론계 첨단 다기능성 High Hollow 필라멘트 제품의 개발
- 고내열성 Colored Comfortable Extreme Wear 복합직물 개발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 특허
 - 직물 코팅용 항균 투습형 폴리우레탄 수지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특허번호 10-08339898) 외 3건
-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매출액 증대
 - 최신 선진 직물 생산에 따른 바이어군 Up-grade를 통한 해외영업 확대
 - Patagonia, Gore, TNF 등 고품질 바이어 상담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
 -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국내·외 시장 공략
- 향후 투자방향
 - R&D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인력개발과 고품질 섬유제품의 혁신을 통한 미래 가치 창조
 -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경영혁신 컨설팅 및 관련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상호 간 신뢰구축
- 기대효과
 - 스타기업과 육성전담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인 신제품, 신기술 개발, 의류분야의 일류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타사 대비 우수한 물성강도, 고부가가치 초경량 아웃도어 제품 생산
 - 20D 직물의 경위사 인열 3lbf 이상의 고강력 직물생산 Know-how 보유
 - Pertex 원단을 능가하는 Softness 직물 구현
 - 원단 자체 Noise 발생 최소화 Quality 확보
 - 3회 세탁 후 내구적인 다운 내구성 직물 생산공정 확보
 -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된 물성 및 가격경쟁력으로 다국적기업과 공조 강화

11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 섬유소재연구소

1. 산업 동향

□ 전체 동향

〈2010년 현황〉

- 상위 20%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였고, 하위 20% 기업은 매출의 급격한 하락으로 정리되는 기업이 많았으며, 중간 60% 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임
 - 이는 오더물량이 늘어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도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익의 일부를 내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상위 20% 기업 대부분은 매출증대와는 달리 순익은 크게 감소하였다는 분위기임. 특히, 자동차용 섬유제품의 경우 금년도 도요다 자동차 사태로 국산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납품가격은 그대로여서 수익률이 예년 4~5%대에서 1~2%대로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임
- 국제 원유가격 변동과 달러화 강세는 섬유분야에도 큰 타격을 준 것은 확실하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면화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덩달아 널뛰기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임
- 또한, 원료수급의 어려움과 원가절감 압박에 시달려 온 원자재 업체들이 재고부담을 안지 않으려는 자구노력으로, 급기야 주문생산이라는 생산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중간재 업체들의 납기조정은 물론 현금거래에 대한 자금압박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더구나, 가공임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임가공업체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수익성 악화지속으로 그야말로 내년 경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임
- 섬유업계의 환율 마지노선이 1,150원 선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점차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최근의 수출증가 현상에도 수익성 하락에 고민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원자재 난으로 가동률 또한 70%대로 크게 떨어져, 급기야 원자재 수급문제로 가동 중단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음
- 인력난은 금년 한해 연속적인 외국인력 강제 출국조치 등으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밀려드는 오더물량을 맞추지 못해 발만 구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2011년 전망〉

- 원자재 난의 지속과 러시아의 원유수출 관세부와 정책 실행에 따른 국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걱정이 산을 이루고 있음
-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는 국내외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년 환율 역시 금년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중국이 고품질 제품 정책을 수행한다는 소식도 가뜰이나 중국산 제품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섬유소재 업체들은 내년을 더욱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임
- 인력난 역시 정부부처간 팽팽 정책으로 외국인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채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위기감으로 섬유로부터 발을 빼려는 움직임도 있어, 금년말과 내년초를 즈음해 일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종종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동안 물을 흐려 놓았던 군소업체들이 정리된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도 있음

□ 세 부 동 향

〈2010년 현황〉

- 원 사
 - 10월부터 인도의 면화수출 관세가 폐지됐다는 소식에도 여전히 국내 면사 가는 매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면화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국내 면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면소재 관련업체들의 가동률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최근 휴비스나 코오롱 등 대형 원사업체들이 Rayon이나 Polyester 등의 원사가격을 금년 연말까지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사물량 확보에 불을 붙인 상황이지만 자금난으로 사전 주문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자금 확보가 되었다 해도 그나마 원하는 만큼의 물량 확보 또한 어려운 상황임
- PP와 PLA 등은 아직 틈새시장 수준이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가공 업체의 경우는 금년 한해 동안 넘치는 오더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고, 특히, 프랑스 Roann사의 저속연사기 ARCT 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연사 오더물량이 넘쳐나고 있음
- 양모 폐섬유를 이용한 재활용 방모사 오더가 꾸준한 성장세에 있어, 섬유 재활용 사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음

● 편 직

- Low Gauge 분야 오더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사 등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수익성은 최악의 상태로 전해지고 있음
- 한편 중 Double 오더는 넘치고 있으나, Single 오더는 부족한 상태임
- 원사가격 상승으로 Bottle Neck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경편은 트리코트와 Long Pile 및 더블랏셀, 알로바 오더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금년 한해 동안 비교적 많은 오더를 진행함
- 편직기 제조업체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 쌍용기계가 자금난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폐업수순을 밟고 있어 그동안 이 분야 경기를 짐작케 해주고 있음
- 인력난으로 오더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매출증대로는 크게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은 요원함

● 염 색(날염 포함)

- 원재료 가격, 특히 염/조제가 상승은 염색가공 공장의 수익성 악화를 더욱 부채질 하였고 수급물량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 약 20~30% 정도의 상위 염색가공 공장은 꾸준한 오더를 진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오더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음
- F/W용 트리코트와 벨벳류 등의 Pile 직/편물 염색가공은 꾸준한 상태로 보임
- Cotton 염색 오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화학섬유 오더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었으나, 이 또한 최근 원사가격 상승과 재고 물량 소진으로 오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로서 에너지와 원가절감 등의 지구노력으로 이와 관련된 설비투자도 꾸준히 이루어진 한해였음

● 후가공

- 단순 기모나 엠보싱 공장은 조제약품 사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이나, 인력난 및 인건비 문제에 대한 고충은 매우 심했던 한해였음
- 그러나 계절을 타는 관계로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어, 금년 한해로 보면 매출증대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감소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직물분야 후가공의 경우는 예년과 달리 비수기에 빨리 접어들었다는 분위기로, 가동을 또한 염색업체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감소현상이 두드러졌음
- F/W용 트리코트와 벨벳류 등의 Pile 직/편물 가공은 꾸준하였음
- 선진국 추세인 기능성 가공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제품개발은 이루어졌으나, 직접적으로 매출에 연계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국내 기능성 소재 시장형성이 초기단계이고, 일본산 기능성 소재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유사제품인 중국산 물량공세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항균/소취 가공의 경우 은나노나 천연추출물인 녹차, 천연 염색제품 등이 꾸준히 출시되었지만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향상은 보이지 않았음
- 친환경 가공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던 한해였고, 이에 따라 친환경 약제로의 변경 노력도 다수 있었고 일부 성공한 기업도 있음
- 특히 유성기반의 가공약제를 수성기반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많은 반면, 성공한 기업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음.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성기반 설비를 갖고 있고, 유성약제와 수성약제와의 건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으로 생각됨
- 난연가공에 대한 수요도 많았던 한해였으나 대부분 할로겐계 적용에 그쳤고, 친환경 난연제인 인계나 실리콘계 적용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원재료 비용부담으로 보다 저렴한 약제 선택에 의한 것도 있지만, 미주선과 일본선 수출의 경우 일부 할로겐계 난연제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도 있다는 안위한 대응책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1년 전망〉

● 원 사

- 원사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예측
- 면화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겠지만, 중간상들에 의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사가공 업체의 오더물량은 원사 공급부족 사태로 내년 오더는 회의적인 분위기임
- 틈새시장 공략이 중소기업이 가야할 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원사개발로 미래를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

● 편 직

- 전 세계 니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에도 경편과 환편 분야에서 오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과 같은 원사가격 상승과 인력난은 내년도 작업물량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인력난이 지속된다면 생산차질에 의해 매출 증가량 또한 낮을 것임
-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직분야 신제품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염 색(날염 포함)

- 원재료 가격과 원사가격 상승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내년도 물량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됨
- 염색분야 역시 금년 연말과 내년도 초반을 전후해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 불안한 외적 요인에 대한 대처 및 기술개발보다는 내적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 최선의 방책으로 간주되어, 에너지와 원가절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또한, 관련 설비개체와 증설도 꾸준할 것으로 전망됨

● 후가공

- 내년 역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당분간 일본산 기능성 소재 답습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국산 저가공세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임
- Pile 직/편물 분야는 예년처럼 오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가공기술을 적용한 표면변화 효과 제품군도 계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행히 기술개발 의지는 강하여 내년도 신제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위 20% 정도만이 기술개발 투자의사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신제품 출시율은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의 원자재 확보난이 계속된다면 이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인력난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산차질 현상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2. 지역 주요 뉴스

□ 동두천에 ‘경기섬유·봉제지식센터’ 건립

- 경기북부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가 동두천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185억원(국비 50%)을 들여 동두천시 지행동 3천933m²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3천200m² 규모의 아파트형 임대공장과 지원시설 등을 갖춘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를 오는 2013년까지 건립키로 하였음
 - 동 센터에는 60여개의 봉제, 패션디자인, 단추 지퍼 등 의류용 액세서리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센터를 통해 Fast Fashion 경향에 맞춘 기획·디자인-봉제-마케팅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내수시장과 수출을 위한 마케팅, 브랜드 개발지원 등 섬유패션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 국내 봉제의복 제조업체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중국으로 생산기반을 옮기면서 제조업체 및 종사자수가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섬유패션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 봉제의복 제조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 경기도내 봉제업체는 지난 2000년 415개(10인 이상)에서 2008년 279개로 30% 이상 감소했고, 종사자도 1만3천명에서 3천명으로 크게 줄었음. 이에 따라 Fast Fashion 경향을 보이고 있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디자인에서 봉제·마케팅 연계체계가 절실히 되고 있음
-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센터가 건립되면 섬유소재, 패션의류 생산기반 구축으로 고부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 지역내 유희 여성인력 활용 등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 미주 섬유시장 진출방안 세미나 개최

-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와 한국섬유소재연구소가 ‘미국 섬유시장 진출방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 방기성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관련업계 종사자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음
-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 섬유산업의 효과적인 미국시장 진출방안과 관련하여 LA한인 의류협회 케니박 회장이 최근 ‘미국 섬유시장 현황’을, 경기도 북미사무소 이태목 소장이 ‘GKC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국내 섬유기업인들의 국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음

- 또한 부대행사로 진행된 경기북부 섬유기업 클러스터 신제품 발표회에서 경기북부에서 생산되는 섬유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섬유기업과 바이어들로부터 샘플요청 및 제품상담을 받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음
- 최근 경제장벽과 치열한 무역경쟁은 국경을 넘는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섬유산업 또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이에 한국섬유소재연구소에서는 경기북부 중심의 제품개발 Cluster를 구축하여 신제품을 기획하고 최근 지역 공동브랜드인 G.Knit로 제품을 출시하는 등 급변하는 세계섬유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12 충남 공주 · 유구 자카드산업 동향

한국 자카드 섬유 연구소

1. 자카드 산업동향

- 충남 공주 · 유구지역은 전통적으로 인테리어 직물이 강세이나 최근 보급형 인테리어 제품이 중국 제품의 시장잠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고성능을 지닌 고부가가치 특성직물로의 변모와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지역의 각 업체에서는 인테리어 직물 다양화의 일환으로서 수송용 직물인 난연사의 하이테크 자동차시트 제품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고부가가치 난연 자동차시트 개발에 따른 해외 경쟁업체 대비 고성능, 친환경, 고급화의 제품개발에 필요한 내용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인 인계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사의 중합, 방사, 사가공(가연, 연신, 복합)의 제사기술 확립 및 난연성이 우수한 원사를 개발(LOI 34 이상)하여 최적의 중합설계 및 신규 방사공법으로 원사업체와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사가공 기술이 접목되어야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함
- 차별화, 고급화에 따른 수요자 욕구 만족을 위해 Soft Touch 및 기능성 부여 제품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섬 난연사 및 흡한속건 난연사를 이용한 중형 자동차시트를 개발함에 있어 High Multi 난연사를 사용해야함. 원사 고유의 터치 및 원단 표면의 피치효과, 천연섬유 효과를 위해 원사 DTY 75d/144f, DTY 150d/288f를 사용하고 있고, 난연성을 가진 흡한속건성 원사를 이용한 원사 고유의 흡한속건성 신기능 효과를 위해 난연원사 DTY 75d/36f, DTY 150d/48f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생산에 착수하였음
- 세계적인 오리엔탈 디자인을 부여한 자동차시트 제품개발로서 신감각의 독창적인 디자인 및 고급 컬러와 배합된 디자인 기술이 필수적이며 Key Color를 Base로 동양의 독창적인 이미지 디자인을 가미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에스닉 & 오리엔탈 무드와 이국적이며 다양한 컬러의 혼합으로서 세계 유명 제품 및 자동차 디자이너의 유행 접목이 필요한 숙제이기도 함
- 현대사회는 Total 패션시대로 트렌드 싸이클이 비교적 빠르게 변모하고 있음. 이에 2011년을 겨냥한 Autumn/Winter 2011-2012 Premiere Vision 전시회의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Hairappeal(털 소재의 어필) 피치스킨 가공의 부드러움에서 긴 모헤어에 이르기까지 참관자들은 비벼보고, 쓰다듬으며 털 소재를 직접 느꼈음. 털을 짧게 깎아낸 브로드클로스, 크림과 같이 부드러운 모피, 컷-얀 실크들, 헝클어진 부클레, 울 레이스와 털 효과의 지수 등 모든 털들이 아주 부드러운 파스함을 통해서 유혹적으로 어필하였음. 무엇보다 벨벳제품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으며 매우 유연한 코듀로이, 엔젤스킨 표면의 테크니컬 직물, 기분 좋은 촉감의 에머라이징 가공제품들이 주류를 이루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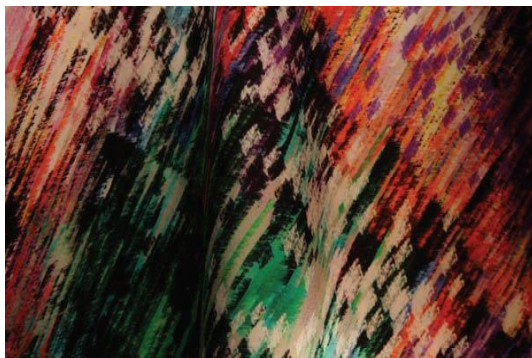


© JERSAN KNITTING / PREMIÈRE VISION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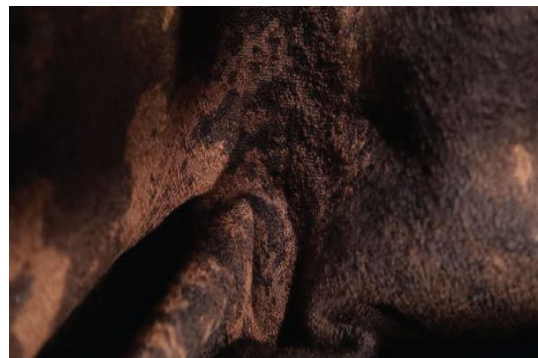


© MALFROY-MILLION / PREMIÈRE VISION SA

- Abstraction as a leitmotif(중심적인 추상 무늬)로써 회화적인 패턴은 거의 선택되지 않았으며 이번 시즌의 승지는 추상적인 장식들, 불분명한 형태의 자카드, 흐릿한 프린트들이 선보였고 바이어들은 흥미하게 번진 것에 매료당하였음. 쉽게 알아볼 수 없는 장식, 안개 효과, 부분적으로 지워진 장식 등이 선택된 것이 그러한 점이며, 자수와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인 것이 주도적이었지만 아무렇게나 엮은 듯한 그물망 모양이었고 동물 모티브조차도 추상적으로 연출되었음



© GIRANI / PREMIÈRE VISION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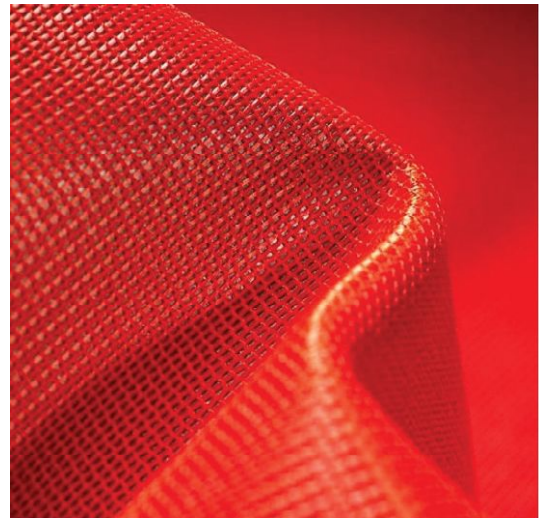
© NEOSETA / PREMIÈRE VISION SA

- Rigorously Structured(엄격한 구조-조직) 면에서는 조직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바이어들의 선택은 조직감, 구조감을 강조하던 지난 시즌들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고, 과장되지 않으며 좀더 섬세한 조직을 선택, 절제된 풍부함을 보여줌. 바이어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는 구조적인 조직들, 뚜렷한 텍스처어의 실크, 코튼이나 울 소재에 연출된 꼴이 확실한 사선 조직들,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 깔끔한 립스탑, 뚜렷한 엠보싱이 베스트 결과로 나타났음. 여전히 기능성 합성섬유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보호기능성의 울과 울 혼방이 선택되었으며 테크니컬한 직물도 마이크로 벨벳과 엔젤스킨의 따뜻한 부드러움이 선택되었음



Not to be overlooked, is the new three-dimensional, reflective Retro-Glow fabric with its embossed woven structure.

CLOSE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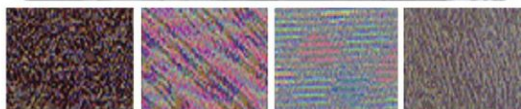


The c_change™ membrane gives a waterproof quality to the combination of a fiery red mesh with a matt grey fleece.

CLOSE X

-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적인 미감을 가진 동양 스타일 디자인이 등장하였고, 대중매체에서도 소비자의 관심이 표출되며 고급 제품을 연출하는 자카드 제직기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자카드 제품의 점진적인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최신 트렌드의 자동차 자카드시트 적용사례>



2. 충남지역의 중국 전시회 참가동향

● 중국 커치아오 국제 방직품 전시회 개요

전시회명	2010 중국 추계 국제 방직품 전시회 CHINA KEQIAO INTERNATIONAL TEXTILE EXPO 2010
개최기간	2010. 10. 25 ~ 10. 28 (4일간)
개최장소	커치아오 중국 경방성 국제회전중심
개최주기	연 1~2회
참관규모	약 25,000명
전시규모	3개 전시장 총면적 3만1000m ² A지역 : 특수 방직물 전시구역(400부스) B지역 : 기본 방직물 전시구역(500부스) C지역 : 방직기계, 설비(300부스)
주 최	절강성 인민정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방직공업협회, 중국상업연합회

● 전시회 특징

- 2000년도부터 올해 13회째인 동 전시회는 높은 수준의 방직품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국 최대 규모의 방직품 전시회이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해외 9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3개 전시장에서 1,200여개의 부스로 개최되었음
- 전시장 인근은 원사, 니트직물, 의류, 침장, 캐주얼, 정장, 인조가죽제품, 기능성 직물군으로 구성된 대단지로써 전국망을 형성하여 국제전시회를 개최하기 좋은 위치이며, 시기적으로는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전시회를 마친 외국 바이어를 유치하기 좋은 조건이었음. 단, 섬유기계 부문에서는 많이 아쉬운 전시회였음

13 | 전북 섬유패션산업 동향

한국 니트 산업 연구원

1. 2010년도 전북 섬유패션산업 현황

-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은 면소재 의류, 면사, 면직물, 면편물, 견직물 등 천연섬유 위주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
- 품목별로는 내의류, 유아의류를 중심으로 한 의류가 섬유패션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의류 생산에 필요한 면직물, 면사, 편직물, 염색가공 등의 생산기반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주력 생산제품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 및 수입 급증으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고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이 속출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사업체수와 생산액은 연평균 각각 5.5% 및 4.4% 감소하고 있음
 - 월평균 종사자수도 생산 감소, 인력 감축 등을 통한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및 설비 성력화 등으로 연평균 11.5%나 감소하고 있음
 - 전북지역 부가가치액은 지역 섬유패션업체들의 적극적인 제품 고부가가치화 노력과 신규 아이템 도출 등에 힘입어 생산 감소폭에 비해 다소 증가되는 추세임
- 이처럼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이 대내외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전체 섬유패션산업에서의 위상은 물론 전북 경제에서의 위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근래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전체 제조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10% 이하로 떨어져 전북 경제 전체에서의 위상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하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사, 의류 제품, 봉제 등 관련 최신 기술 도입과 소재 및 제품 개발을 통하여 저부가가치 생산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구조로 진출하여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의 부가가치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2. 전북 섬유패션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기술혁신 및 제품 차별화 미흡

- 생산 및 설비, 생산인력 등 일정 수준의 섬유패션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인해 기술 혁신 및 제품 차별화가 미흡함
- 특히 패션의류 분야의 경우 핵심 경쟁요소들인 디자인, 브랜드 등이 전무하며, 선진국의 전시회 참가를 통한 모방형 또는 개량형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염색가공 기술의 경우 범용품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나, 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저부가가치 생산구조로 고착화

- 이처럼 기술 혁신 및 제품 차별화 미흡으로 신제품 개발 및 차별화 소재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구조가 내의 중심의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에 의한 저부가가치·범용품 위주로 고착화됨
- 이로 인해 중국 등 후발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이 많으며, 후발 개도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생산설비 확충과 함께 수출확대를 꾀하면서 경쟁시장 잠식을 가속화하고 있음
- 특히, 고기능성 소재의 생산기반 약화로 스트림간 협력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한계가 있음

●세계 트렌드 및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력 저하

- 내의 중심 규모의 경제에 의한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인해 세계 트렌드 및 수요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함
- 주문자 상표 부착(OEM) 수출에 의존한 나머지, 수출시장의 특성 및 수요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기업들이 하청생산에 의존한 나머지, 기획·디자인·마케팅 기능 취약

3. 전북 섬유패션산업의 기술개발 전략 및 현황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고기능성·친환경 천연섬유 신소재 발굴 및 육성

- (유)지리산 한지(대표 김동훈)는 닥섬유사의 원료인 닥펄프 100%를 이용한 기계한지 제조에 성공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닥섬유 제품 전개의 초석을 마련함
- (주)쌍방울트라이그룹(대표 최제성)은 국내 최초로 200수 속옷을 출시하고 있으며, 신기능성 합성섬유와의 복합화를 통한 용도를 확대하고 있음

- 도내에는 원사를 제조하는 (주)신한방, 염색가공업체인 전일염공, 편직업체인 협동섬유, 봉제업체인 해피상사가 인증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오가닉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의류용 뿐만 아니라 생활용 및 산업용 섬유제품 전개

-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탄소섬유(Carbon Fiber)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으로서, 향후 5년간(2011~2015년) 총 1,99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탄소밸리 구축' 사업안의 예비타당성 통과로 전주권이 탄소섬유 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확보
- 전통 한지의 수요 감소 등으로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있는 전주 한지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주 한스타일진흥원, 완주 한지체험관, 임실 닥나무 재배단지 등 한지 관련 인프라를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지 인프라 산업벨트' 로 구축

4. 향후 발전방안

-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비해 고기능성·친환경 천연섬유 신소재 발굴 및 육성
- 고기능성·친환경 천연섬유 신소재 개발을 통한 글로벌 공급기지로 도약
- 고부가가치의 차별화된 패션의류 중심의 생산구조로 전환

2010. 11

섬유패션산업 동향

발행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전 화 02-528-4025

발행인 노 희 찬

비매품